

광 고

원양산업

제 1123 호

(2020년 7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4/
- 원양업계, TF팀 구성해 제1차 회의 개최 5 /
- 원양산업 증견 3사, 수산 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 /
- 협회, 노후 원양어선도 안전하고 쾌적한 선상생활 가능 홍보/

■ 협회 6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8 /

■ 참치 요리 만들기

(참치회 무침)

5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0년 6월 보고 내용

/6



해외수산정보

■ 참치어업 동향

- 에콰도르 캔 가공업자-어업자 코로나19 부정적 영향 우려/
- 황다랑어 어가 빠르게 회복 2
- 방콕 가다랑어 어가 FAD 금지 이후 천천히 상승 32/
- 도요스 6월 신선 대물 입하 32% 감소한 1,691마리/

- 중서부태평양 FAD 금지는 가다랑어 가격에 어떤 영향
- 다가오는 어장폐쇄 기간 영향으로 만타 어가 소폭 상승
- EU 인도양 어선 2020년 황다랑어 쿼터 못 채울 듯
- 태평양 도서국들 안정적 수입은 조업일수 뿐 72
- 옵서버 사망에 대한 보고서 논란 8
- 열대 참치 타겟 대형 선망선 척수 지속 증가 92
- 인도양 스페인 참치 선망선 코로나19로 50% 정박
- 일본 해외선망협회, 국제 경쟁력 있는 어선으로
代船 건조 추진 /31
- 냉동 가다랑어 소형 중심으로 시세 약세 23
- 냉동 가다랑어 국제 가격 하락 1,200달러 23
- 냉동 대형 눈다랑어 4개월 연속 하락, 30%
떨어진 600엔 /33
- 돈 되는 원양 연승 두 가지 계획 3
- 유럽 소비자, 가격 보다 지속가능성에 더 큰 가치 두둑

■ 오징어어업 동향

- 美 오징어어업 2개사 MSC 획득 3
- 일본 살오징어 5월 조업 1% 증가한 1,282톤 57
- 살오징어 40% 감소, 처음으로 10만톤 아래로 떨어지
- 도우토우 태평양 복상기 자원조사 결과 발표 63
- 일본 6월 신선 살오징어 어획 60% 증가한 4,000톤/

Contents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흰살 생선 대기업, 새로운 명태 슈퍼트롤선 건설 38/
- 러시아 올해 명태 TAC 추가 배정 결정 99/
- 러시아 대기업 명태 가공공장 건설, 9월 가동 목표 98/
- 알래스카 명태 회사 임원들 평상시와 다른 어업 시즌 대비 10/
- 미국 수리미 4월부터 하급품 30엔 하락 14/
- 남미·유럽 수리미 아르헨티나 7,000톤 계획 24/
- 홋카이도산 수리미 2020년 4만톤 대 기대도 24/

■ 일본 수산 동향

- 일본산 고등어 5월 對중국 수출 22배 증가 34/
- 참치, 돔 등 인터넷 쇼핑몰 배송비 부담 34/
- 일본 개정 어업법 12월 1일 시행 4/
- 수산 단체, 정부 예산 지원 다시 요청 44/
- 양식 어류와 참치 등 6개 어종 무료 제공 유통 촉진 44/
- 일본 원양어업 경영 압박, 고정 경비 월 9억 엔 64/
- 일본 양관점과 슈퍼 수산물 판매 호조 64/
- 일본 5월 수산물 수입액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 54/
- 일본 5월 수산물 수출 3% 증가한 6.3만톤으로 회복 44/
- 우미토론, 해양 정보 수집에 관측 위성 이용 84/
- 일본, 홍콩에 일본산 식품 수출 확대 나서 84/

■ 각국 수산 동향

- 노르웨이 수산물 상반기 수출액 사상 최고 94/
- 러 세계 최대 가공선 정어리·고등어 작업 착수 94/
- 유기 양식 새우 유럽에서 인기 95/
- 아이슬란드 해덕대구 쿼터 늘리고 대구 쿼터 줄임 95/
- 나미비아 민대구 조업 20개 회사, 상당한 쿼터 삭감 직면 95/
- 베트남 5월 수산물 수출 1.6% 감소 96/
- 새우 미국 4월 수입 6% 증가한 5만 2,000톤 25/
- 빨갱이(적어) 미국 알래스카산 지난 10년 최저가 25/
- 사바야 그룹 고등어 양식에 ICT 도입 35/
- EC 해양수산총국 국장 신규 선임 35/

■ 쉬어가는 난 (詩)

- 허허바다 <정호승> 45/

■ 국내 수산 뉴스

- 해양수산 신산업 성과창출 본격화! 55/
- 해수부, 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소비쿠폰 발행사업자 모집 56/
- 해양모태펀드 1호 투자의 주인공은? 75/
- 해수부 제 3차 추경 784억 원 확정 8/
-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온라인 전시장(쇼룸) 판매 5/
- 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06/
-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 및 기술거래지원단 발족식 개최 16/
- 비대면 방식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 16/
- 대구의 비밀스런 번식 행동 최초 공개! 26/

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NGO 대응방안 모색



우리 협회 회장단 간담회가 지난 6월 30일 우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장단 간담회에는 우리 협회 운명길 회장을 비롯, ㈜남북수산 김광수 상무, 동원산업(주) 이명우 대표이사, 동원수산(주) 왕기철 부회장, ㈜사조대림 이인우 부회장, 신라교역(주) 이광세 대표이사, 정일산업(주) 박철웅 회장, 한성기업 임준호 대표이사 <이상 회사명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회장단은 최근 NGO 단체에서 우리 원양어선 불법어업 및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건에 대해 경과 사항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보고 받고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NGO 단체의 정부 브리핑, 방송 및 신문 기사 보도 내용과 해양수산부의 대책 발표, 협회의 반박 보도자료 배포 등 경과 사항을 보고했다.

아울러, 현재 주요 이슈인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외국인 선원 임금, 최장 근로기간 단축, 외국 인선원의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송출 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한 NGO, 해양수산부, 원양 업계의 입장 차이와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사항을 보고했다.

회장단은 이날 동 건에 대한 대책으로 회장단사임원(본부장)이 참여 및 주도하는 T/F를 구성하여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원양업계, TF팀 구성해 제1차 회의 개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30일에 개최된 회장단회의 후속 조치로 'NGO 등 대응 관련 제1차 TF 회의'를 7월 1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NGO 등 대응 관련 TF'는 최근 원양어업을 둘러싼 국제환경과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이 변화하고 있

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원양어업이 인권·환경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함에 따라 원양어업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조치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최근 우리 협회 회장단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동원산업(주), 동원수산(주), 사조산업(주), 신라교역(주), 정일산업(주), 한성기업(주) 등 우리 협회 회장단사 본부장, 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언어 및 물리적 폭력 금지, 차별 해소조치 차단, 급여 체불 및 송출회사의 공제 방지 등이 논의되었다. TF팀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인권분야, 어업분야, 안전·쓰레기 분야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제2차 TF 회의는 오는 8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원양산업 중견 3사, 수산 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 공유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대표 및 본부장 등 임원들과 수산 전문지 기자들이 지난 6월 22일에 양재동 인근 식당에서 만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동원산업 주최로 동원산업 이명우 대표이사와 민병구 전무, 신라교역 이광세 대표이사와 안길환 본부장, 사조산업 김치곤 전무, 수산 전문지 기자들이 참석, 협회에서는 이동욱 경영지원본부장, 최경삼 해외협력본부장, 김현태 홍보·마케팅지원센터 이사 등이 참석했다.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3사는 앞으로 변갈아가며 수산 전문지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상호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와 수산전문지 기자들은 원양산업이 현재 직면한 상황과 문제점들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 노후 원양어선도 안전하고 쾌적한 선상생활 가능 홍보

협회는 대다수 원양어선들이 그동안 선저에 철판을 덧대거나 각종 기기를 교체하는 등 주기적으로 선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정부 당국의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30~40년 된 원양어선이라고 해도 선박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협회는 특히 밀레니엄 시대를 전후해 원양어선원들의 높아진 인권 의식 등을 반영하여 선박 리뉴얼 등을 통해 선내 거주 환경을 쾌적하게 탈바꿈시킨 원양어선들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협회는 그러한 대표적 사례로 동원산업(주) 소속 1000MT(어획물 선적 기준) 참치 선망선(PURSE SEIN, 퍼세이너)인 COSMOS KIM호(총톤수 733톤)의 관리 실태를 사진과 함께 상세히 소개했다.

COSMO KIM호의 경우 1981년 1월에 진수된 원양어선으로 40년 가까이 된 노후 어선임에도 마치 건조된 지 몇 년 안 된 배처럼 깔끔한 외관과 선내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결은 상가 수리 전에 협력 업체 10개사와 사전 미팅을 갖고 선박 도면에 근거한 수리 중요 포인트를 찾아 수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공동 연구 미팅을 정례화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박 수리 체제를 구축한 데 있다. 선박 관리를 위해 월 1회 업체 자체 종합교육을 정례화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 작업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업 컨디션 유지 관리를 위해 DECK MACHINERY, 터널(상·하), 타기실 등 선내 누수나 발청이 있는 현장을 확인해 강재 공사 및 보수도장 작업을 하고 깨끗이 관리하고 있다.

이 선박은 주요 시설 및 장비뿐만 아니라 공용화장실과 선내 식당 환경을 리뉴얼을 통해 개선하고, 샤워기 세면대 및 개인 침실 내부 소재도 개선해 선원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근로 환경도 갖추었다.

오래된 어선이다 보니 선내 거주 공간 등은 구조적으로 공간적 제약이 있지만, 선원들이 선내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용적인 개선을 이뤄냈다.

선박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동원산업(주) 김민호 과장은 『주요 장비 교환 주기 현황판, 핵심 장비 관리 현황판 등을 설치해 놓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노후선이긴 하지만 선박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선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 국내에서 참치 연승선(LONG LINE, 롱라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조산업은 2018년에 31년 된 414MT 참치 연승선 제707오룡호를 리모델링한 바 있다. 제707오룡호는 냉동시스템 현대화 작업을 비롯해 선원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 거주구 개조공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케이블 교체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졌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리모델링 후에 냉동시스템 자동화로 인한 당직 부담 감소, 거주구 개조 등으로 선원들의 반응이 좋고 하역한 참치의 냉동 상태가 뛰어나다』며 이같이 리모델링한 자사 소속 원양 어선이 여러 척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원양어선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원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에서 실제 노후어선 관리 실태와 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동원산업 COSMOS KIM호>

BEFORE



AFTER



<사조산업 707 오룡호>

BEFORE



AFTER



인 사

< 승 진 >

- 해외협력1부 신현애 이사대우
- 해외협력2부 최동환 주임

화 축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협회 김민곤 전무(前) 차남 종혁군이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 일시 : 2020년 7월 18일
- 장소 : 엘타워 그레이스홀(6층)
- 신랑·신부

- 신랑 : 김민곤 이순영의 차남 종혁군

- 신부 : 김승후 김미화의 차녀 지

협회 6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 협회 긴급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일자/장소 : '20.6.30, 14:0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협회 회장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등 15명 / 협회장 외
 - 내용 : 선원인권 및 IUU 등 NGO 활동 관련 대응 방안 모색
- 부산시 주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참여 의향조사(협회 임원사)
 - 부산시 주관, 부산 서구 암남동 일원(국립과학 검역원)에 수산식품산업의 자생적 가치 제고를 위한 네트워킹형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 연구개발·시제품생산, 인력양성·교육, 패키징·디자인, 물류·유통·수출 등 사업
 - 임대공간 입주 : 사무실, 연구소, 공장 등
 - 유치존 입주 : 연구소, 공장 등
- (사)바다녹화운동본부 이사회 서면 결의서 제출
 - 2019년 결산 및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등기임원 구성변경(안) 등
 - * 대표이사장 : 수산자원관리공단 신현석 이사장
- '20.4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6.10 / 협회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5개사 17척 186.47억원 원안의결
- 2020 원양산업통계연보 발간 관련 업무추진
 - 원양부문 해구별 생산통계 관련 오류 검토 및 수정 (썬컴 : 전자조업감시장비 기능고도화 용역)

- 원양 생산금액 추정을 위한 어종별 단가 검토 및 수정 협의(협력센터 원양어업통계조사 담당자)
- 수산물 유통·수급 TF 관련 업무추진(해수부)
 - 코로나19 관련 해수부 수산정책과에 원양수산물 양륙량 관련 통계 주간단위 제출(10, 11차)
- '20. 5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서초세무서)
- '20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서 제출(서초구청)
- 2020년 임직원 연차 사용 독려촉구 추진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의거 전임직원 연차사용 촉구 안내
- '20.5월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 분	생산량(M/T)	전년비(%)
합 계	189,413	87
- 참 치	118,752	74
· 횡감용	15,618	98
· 통조림용	103,134	71
- 명 태	499	275
- 오징어	32,030	230
- 쾡 치	0	0
- 기 타	38,132	90

회원지원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업무 추진
 - 가. 마스크 공적물량 특별 구매에 따른 배부(1차)
 - 5개사 6,000매
 - 나. 입국 외국인선원 격리시설 운영에 대한 협의회 참석
 - 일자/장소 : '20.6.24, 15:00 / 세종시
 - 참석자 : 중앙사고수습본부 팀장 외, 해수부 선원 정책과, 선주협회/ 회원지원부 차장

- 내용 : 외국인선원 격리시설 운영에 대한 협의
- 다. 회원사 안내 및 조사
 - 항만 편승승객에 대한 법무부 입국제한 조치 관련 알림(6.4)
 - 사증 미소지 편승승객 입국불허(무사증입국 가능한 국민제외)
 - 마스크 공적물량 유상구매 조사(2차)
 - 구매희망 물량 없음
 -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격리기간 변경 알림(6.9)
 - 입국한 날부터 14박(기존 : 입국 다음날부터 14박)
 - 해외입국자 방역관리절차 변경 알림(6.16)
 - 14일 자가(시설)격리 기간 중 3일 내 진단검사(기존 : 14일내)
 -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중도 해제 안내(6.19)
 - 항공기로 입국을 하는 선원은 국내에 있는 원양 어선에 선원의 자격으로 승선하는 경우, 코로나 검사 음성이면 격리기간 도래 이전 출항 가능
 - 몬테비데오 선박검사 희망 선박 확인
 - 13개사 22척
 - 러시아 최종 출항 선박 승선검역 실시 안내(6.23)
 - 기존 : 전자검역 / 변경 : 승선검역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철저 준수 요청(6.26)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적 어선의 원격 항만국 검색 알림(6.26)
 - 필리핀, 인도네시아 최종 출항 선박 승선검역 실시 안내(6.29)
 - 코로나19 관련 업무협조 요청 알림(6.30)
 - 입항 전 의심환자, 유증상자 등 신고 철저
- 노사 관련업무 추진
- 가. 제2차 노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6.10, 12:00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노사위원/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 내용 : 임금교섭부의안 등 협의
- 나. 제1차 노사단체교섭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0.6.10, 14:00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노사교섭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 내용 : 임금교섭부의안 등 협의
- 다. 제3차 노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6.26, 15:00 / 협회
 - 참석자 : 노사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 내용 : 임금교섭부의안 및 현안사항 협의
- 어선원 근로조건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6.11, 14:00 / 한국해양대학교
 - 참석자 : 자문위원/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설문 및 실태조사 내용 검토 및 조사방안 관련 자문
- 포항해양과학고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에 따른 산학협력단 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6.12, 11:00/ 포항해양과학고
 - 참석자 : 자문위원/ 회원지원부장
 - 내용 : 학과 개편방향에 대한 전망 및 인력 수요 의견 수렴 등
- 한국선급 창립 60주년 기념식 참석
 - 일시/장소 : '20.6.18, 11:00/ 선급 부산본부
 - 참석자 : 정·관계, 유관기관 대표 등/ 협회장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2차 회계감사선임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0.6.29, 12:00/ 부산
 - 참석자 : 회계감사선임위원/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 20년 상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 관련 원양어선 입항 현황 조사(전화원사/6.1)
 - 어선별 6월 중 국내 입항일정 및 지역 등 조사, 3개사 3척 입항예정
- 외국인선원 임금지급방법 및 임금체불 예방협조(회원사/6.3)
 - 외국인선원의 월 임금지급 방법과 체불여부 등 점검사항 회원사에 안내
- 해외선원모지관리사업 추가 수요조사(한인회/6.8)
 - 기 확정된 사업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관리 사업 조사

- 선상수산물 가공업 신고 현황자료 제출 요청 (전화원사/6.16)
 -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어선현황 파악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운영 관련 알림 (전화원사/6.18)
 - 배출규제해역 지정 운영에 관한 주요정보
-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해수부/6.24)
 - 근로시간, 휴식시간에 대해 선원법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동 선원법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어선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요청.
- 2021년도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12개사 66명 신청(해수부/6.30)
- 해적관련 업무추진
 - 가. 해적피해예방 제도 및 정책 개선 전문가 워크숍 참석
 - 일시/장소 : '20.6.15, 14:00/ 해양수산연수원
 - 참석자 : 해수부 담당 주무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선주협회, 관련업체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해적피해예방법 관련 협의
 - 나. 서아프리카 해적피해예방긴급대책 영상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6.26, 15:30/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 선원정책과, 원양산업과, 원양노조, 해상노련, 선박관리산업협회, 선주협회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해적사고 상황공유, 피해예방 강화대책 논의 등
 - 다. 2020년도 청해부대 파견 연장에 대한 의견 제출(해수부/6.30)
 - 원양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하여 파견 필요성 강조
 - 라. 중서부아프리카 연근해 통항 시 해적경계활동 강화 알림(전화원사/6.25)

홍보·마케팅지원센터

- 원양산업지 6월호(제1122호) 제작
 - 협회소식 6건(NGO 원양어선 불법어업·인권 침해 주장 반박 등)
 - 국내소식 8건, 해외수산정보 47건
 - 명예해양수산관 보고사항, 업무 동향 등 정리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124개소 323권)
- 원양산업 정보&뉴스 관련 업무 추진
 - 가.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58호 6.3, 59호 6.10, 60호 6.17, 61호 6.24/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58호 정보 16건(인니, 해외 취업 선원 모라토리엄 검토/ America Seafoods 선원 85명 확진/ 日 살오징어 3월 어획, 2.6배 등)
 - 제59호 정보 18건(냉동 눈다랑어, 대만 600엔 붕괴/ 포클랜드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 평균 이상 보고/ 러시아, 남극 크릴 어업 확장 검토 등)
 - 제60호 정보 12건(태평양 참다랑어 자원 회복, ISC/ 러시아 명태 H&G 가격 바닥 근접/ 중국, 남서대서양 오징어 휴어기 설정 등)
 - 제61호 정보 16건(日 선망 代船 건조 추진/ 알래스카 명태, 평상시와 다른 어업 시즌 대비 / 나미비아 민대구 조업, 쿼터 삭감 직면 등)
 - 각 호 조업 동향, 유가정보 취합
 - 나. 수신 연락처 재조사(전화원사, 6.1)
 - 조사 결과 3개사 14명 추가 요청, 조치
 - * 추가 후 카카오톡 128명, 이메일 73명
 -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3개사 대표 및 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6.22, 12:30/ 어진(양재시민의 숲 역 인근 식당)
 - 참석자 : 동원산업 이명우 대표, 민병구 전무, 신라교역 이광세 대표, 안길환 본부장, 수산전문지 기자 9명, 협회 이동욱 전무, 최경삼 전무, 김현태 이사 등

- 내용 :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
- 보도자료 작성, 홍보
- 가. 「코로나19로 참치, 건강 식품으로서 가치 주목」
보도자료 배포('20.6.3, 수산전문지, 인터넷)
- (지면) 수산신문(6.8) 2면, 수산인신문(6.8) 6면
- (인터넷) 데일리e뉴스(6.4), 리얼푸드(6.5),
헤럴드경제(6.5)
- 나. 「원협, NGO 원양어선 불법어업·인권 침해
주장 반박」 보도자료 배포('20.6.11, 일간지
및 방송, 수산전문지)
- (지면) 수산신문(6.15) 1·4면, 수산인신문(6.15)
3면, 한국수산신문(6.15) 4면, 어민신문(6.15)
7면 게재
- (인터넷) 현대해양(6.11) 게재
- * 홈페이지 팝업 게시
- 수산전문지 기고
- 경영지원본부장 기고 「원양어업의 변화와
경쟁력 강화」 게재(현대해양 7.1, 17면)
- 기타
- 수산신문 창간 기념 축하 메시지 송부(6.11)
- 회원사 화측 자료 배포(수산전문지, 부산일보,
국제신문)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2020년 전자조업감시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선
사업 착수 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0.6.16, 14:00 / 세종청사 5동 회의실
- 참석자 : 원산과, FMC, 수품원, 과학원, 썬컴
(용역기관), 협회 협력1부 담당대리,
기획총무부 담당과장
- 내용 : 2020년 전자조업감시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선사업 설명, 전자조업보고용 앱개발
(단말기 노후화로 모바일 태블릿 보고)

- 제2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6.26, 13:0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치연승출어사 / 협회 해외협력1부
- 내용 : 참치 소비 촉진 행사 건의 방안 등 논의
- 원양어선 안전펀드사업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0.6.30, 14:00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참석자 : 가나마린, 정일산업, 해인수산
/ 협회 해외협력1부 사원
- 내용 : 원양어선 안전펀드사업 개요 등 전반
설명 및 질의응답
- 코로나 19 관련 지원사항
- 가. 코로나19 대응 지원 요청(해수부)
-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침체로 원양 오징어
조기 정부 비축, 횡감용 참치 소비 촉진 예산
확보 건의
- 나. 투발루 입항 조건 안내
- 입항 선박의 14일 내 방문 장소, 승선 인원,
의심 환자 정보 등을 선박 대리점에 제공
- 국제수산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가. WCPFC 및 ICCAT 국제수산기구별 선박(변경)
등록 조치
- 나. CCSBT 2020어기 이월쿼터 배정요청(6.8/해수부)
- 다. 국제수산기구별 5월 쿼터소진 및 전배 현황
보고(해수부)
- 라. 국제수산기구별 선박(변경)등록 조치(계속)
- 마. 프랑스 EEZ(마다가스카르 인근) 압·퇴역보고
안내(전 회원사)
- 바. ICCAT 북방참다랑어 적재확인서 발급 요청
(해수부)
- 사. WCPFC 및 IATTC 수역 쿼터 소진실적 확인
(1~5월)
- 아. 2020년 지역수산기구 어획할당량 소진 및
전배 현황 보고(해수부)

자. CCSBT 남방참다랑어 5월 어획실적 및 7월 양륙계획 통보(해수부)

○ 참치어업 지원사항

가. 키리바시 임시 입어약정 체결

* (약정기간) 6.22 ~ 7.5(2주)

나. 2020어기 PNG, 솔로몬, FSM 수역 입어료 납부

다. 참치선망 조업일수 소진현황 조사

라. 참치선망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

○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 지원 추진

가.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1차 소회의 개최

- 일자/장소 : '20.6.18, 10: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오징어채낚기 출어사 7개사 / 협력1부 담당 차장 외 1명

- 내용 : 구조보트 설치 및 포클랜드 PSC(항만국 통제검사) 선박기준검토

나. 제2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6.25, 10: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오징어채낚기출어사 소위원장 / 해외협력1부 차장 외 1명

- 내용 : 구조보트 및 포클랜드 PSC(항만국통제 검사) 세부내용 검토

다. 제4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7.2, 10:00 / 부산 수 스페이스

- 참석자 : 오징어채낚기출어사 / 해외협력1부 이사 외 2명

- 내용 : 포클랜드 주재원 파견결과 보고, PSC 검사항목 검토 등

라. 부산귀항 오징어채낚기조업선(12척) 항만국 검색 실시 안내

마. 남서대서양 연안국(아르헨티나 및 포클랜드) EEZ 좌표 안내

-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감독관 승선경비 납부 알림(6.5 / 북양, 대구 위원사)

-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감독관 승선경비 납부 알림(6.12 / 동북극국경수비대)

- 감독관 교체에 따른 작업복준비, 보험가입 및 승·하선 이동계획 제출 요청(6.9 / 남북수산)

- 감독관 승선계약서 및 별첨서류 서명본 제출 (6.9, 6.17 / 동북극국경수비대)

- 북양트롤, 대구저연승 조업선 입어료 송금 및 송금 알림(6.26 / 주러대사관, 러수산청)

나. 콩치붕수망 업무추진

- '20년도 러수역 콩치붕수망 조업선 통역관 육상 근무 허용(6.3 / 사할린국경수비대)

- 해상용전자저울 러문 인증서 확인 및 선박 비치 요청(6.3 / 콩치위원장)

- '20년도 조업선 연락처 제출 및 당번선 관련 내용 알림(6.3 / 콩치위원장)

- '20년도 조업선 예상조업기간 등 조업정보 제출 (6.5 / 러모니터링센터)

- 콩치붕수망어선 조업쿼터 수정 배정 및 허가장 신청서류 제출(6.8 / 해수부)

- 통역관 육상근무 관련 조업선 및 통역관 정보 제출(6.8 / 사할린국경수비대)

- 러수역 모니터링센터 통신장비 등록 완료 (6.8 / 러 모니터링센터)

- 콩치붕수망 러수역 허가신청 서한 입수 (6.11 / 해수부)

- 콩치붕수망 러수역 허가신청 및 조업일지 발송 (6.12 / 러 연해주 수산청)

- 러 모니터링 센터 별첨계약 서명본 발송 (6.15 / 러 모니터링 센터)

- 콩치붕수망 공해 및 러수역 조업계획 조사 (6.17 / 콩치위원장)

- 콩치붕수망 조업선 입어료 송금 및 알림 (6.23 / 주러대사관, 러수산청)

해외협력 2부

○ 대러시아 업무추진

가.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업무추진

- 러수역 허가장 발급(6.23 / 연해주수산청)
* 9개사 10척
- 러수역 조업일지 등록(6.30 / 연해주수산청)
- '20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업무 추진
 - 추가 선정 결과 알림(6.3 / 아그네스수산)

회사명	선박명	대상 수역	대상어종	조사시기
아그네스수산㈜	아그네스3	FAO 41	파타고니아 아꼴두기, 민대구	'20.8.5 ~10.5

- '19년도 해외어장자원조사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제출(6.9 / 해수부)
- '19년도 해외어장자원조사사업 정산보고서 작성(6.12 / e나라도움)
- 북양 합작선 등기부 등본서류 제출(6.22 / 해수부)
 - 선박 등기부 등본 서류 제출(9개사 17척)
- FAO41해구 조업선사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0.6.26, 14:00 / FMC 2층 회의실
 - 참석자 : 조업감시센터장 외 6명, 동남 강성훈 부장 외 11명 / 해외협력2부장
 - 내용 : 5월말경 포르투갈 및 중국선박이 아르헨티나 해군에 나포된 것과 관련 아르헨티나 정부의 EEZ라인을 정부에서 입수하여 업계에 통보 예정임에 조업 유의 요청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80개사 681건('20.6.1-6.30)
- 공인차량계량소 진출입로 수리('20.6.17)
 - '20.5.21 차량 진출입로 파손으로 인해 타이어가 손상되는 사고 발생, 부산서구청 도로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이를 수리함
- 재부 수산기관·단체장회 정기모임 참석
 - 일시/장소 : '20.6.18, 19:00/ 해운대 “경복궁”

- 참석자 :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외 20여명 / 부산지부장
- 내용 : 수산업 발전 관련 의견 교환 및 회 발전 방향 협의 등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일본 해양수산 주요 이슈 분석 및 조사
 - 가. 방사능 처리수 관련 일본 정부 동향, 언론 동향 파악/정리
 - 해양방출안 관련 동향 자료 송부(해양환경정책과)
 - 나. 일본재단, 사사카와 평화재단 사업 계획, 예산 자료 송부
 - 해양 관련 예산 및 사업 내용 요약(해양영토과)
- 외부 전문가 초청교육
 - 가. 항만국 검색의 이해
 - 일시/장소 : '20.6.4/ 협력센터 회의실
 - 참석자: 수품원 박민재 주무관(초청강사), 국총과 장민주 주무관, 원양협회 이형균 부장, 조성주 과장, 센터 권현욱 센터장 등 직원
 - 교육내용: 항만국 검색 채택 배경, 절차, 문제점과 개선사항
 - 나. 미국 해양포유류 보호법
 - 일시/장소 : '20.6.25/ 협력센터 회의실
 - 참석자: 손호선 고래연구센터장(초청강사), 원양협회 조성주 과장, 센터 센터장 등 직원
 - 교육내용: 미국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출 규제 개요 및 협상 방안
- WCPFC 논의 대비
 - 2020년 연례회의의 '공해 조업일수 및 눈다랑어 어획한도 재분배' 의제 관련 자료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 RFMO 보존관리조치 번역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 관리조치 최신 업데이트 중
-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보존관리조치 번역 완료
-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보존관리조치 번역
-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번역

○ 읍서버 발전협의회 사전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0.6.9~10/ 부산 아스티 호텔
- 참석자 : 해수부, 수과원, FIRA, 원양협회, 읍서버 협회, 원양선사, 읍서버 등 30여명/ 협력센터 양재걸 팀장, 이재영 행정관
- 내용 : 읍서버 제도 발전을 위한 각종 제언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등 국제읍서버 발전협의회(6/16) 사전 의견 청취

○ 제164차 FAO 이사회(7.6~10, 화상) 준비

- 의제 파악 및 분석 등 회의 대응 준비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20년 상반기 업데이트 대상 국가(캄보디아, 사모아,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정보 수집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가. 명예해양수산물 보고서 등록 13건(OFIS)

나. 명예해양수산물 위촉안내 공문 발송(6.3, 명예 해양수산물3인, 전회원사 등)

- 피지 김종태, 페루 이호상, 가나 이윤홍 재위촉

다. 명예해양수산물 추천 요청(6.16, 전회원사, 협의회 회원사, 뉴질랜드, 미얀마 대사관)

- 뉴질랜드, 미얀마 수산물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 추천 또는 신규지역(신규인원) 추천 요청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가. 제3차 국제화 전략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6.4, 16:00/ 해수부 533호

- 참석자 : 국제원양정책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 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 내용 : 군소도서국과 운영 중인 협의체 현황과 주요 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점검
- 나. '20년 투발루 ODA 사업 관련 지원물품 가격조사 및 NAFICOT어시장 보수작업 관리에 대한 원가 계산 용역 계약('20.6.11 ~ 7.1)

다. 주한 세네갈 대사관 방문 출장(6.22)

- 일시/장소 : '20.6.22, 14:30/ 주한 세네갈 대사관
- 참석자 : 주한세네갈 대사관 Magaye Gueye 일 등 참서관, Peinda Mody Dieng 이등서기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세네갈 ODA사업 추진현황 설명 및 관련 애로사항(통관지연, 소통부재 등) 협조 요청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관련 업무추진

가. 원양어업 통계조사

- 미제출 업체 제출 독려 및 문의 대응
 - 수신 조사표 오류 검토 및 보완 요청
 - 재무제표 등 기업 경영자료 입력
 - 2019년 기준 생산통계 해역·업종·어종 단가 조정
- 나. 원양산업 실태조사 용역 나라장터 공고(6.23)

○ 2020년 해외수산물투자협의회 제1차 정기협의회 및 제20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6.29/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협의회 회원사, 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이희진 팀장, 윤유정 행정관, 이재영 행정관
- 주요내용 : 해외투자부문 주요활동 보고, 2020년 센터 사업 관련 논의 등





참치회 무침



❖ 이렇게 준비하세요

- 4인분 / 210Kcal
- 재료 : 참치(날것) 400g, 양배추(붉은 것) 100g, 무순 50g, 풋고추·붉은고추 2개씩
- ※ 고추장 2큰술, 설탕·식초 2큰술씩, 레몬즙 1작은술, 다진마늘 1작은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참치회 썰기** : 참치는 토막으로 준비해서 한입에 먹기 적당하게 납작썰다. 먹기 직전에 준비하기 어려우면 썰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기 직전에 꺼낸다.

- ② **채소 손질하기** : 흐르는 물에 양배추, 깻잎을 흔들어 깨끗이 씻고 물기를 뺀 후 6cm정도로 곱게 채썬다.

- ③ **고추, 무순 준비하기** : 풋고추와 붉은고추는 깨끗이 씻어 동글썰어 씨를 털어낸다. 무순도 물에 살살 흔들어 씻는다.

- ④ **초고추장 곁들여 상에 내기** : 고추장에 분량의 양념을 섞어 초고추장을 만든다. 접시에 준비된 참치회와 채소를 돌려 담고 초고추장을 곁들여 낸다. 입맛에 따라 겨자장을 내도 좋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6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다카르 자치항에 코로나 전염 사건 기록

- 6월 6일 보건 당국은 지역 사회 전염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사례 중 하나는 다카르 자치항에서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나. 세네갈 정부, 외국 선박에 조업권 부여 거부(6.9)

- 세네갈 정부는 수십 척의 외국 선박(중국 선박 절반 이상)에 조업권 부여를 거부하였음. 정부는 그린핀스 및 지역 어민들과 어로자원 보호 및 어민 생계보전을 위한 공공 캠페인을 시행한 이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 마키 살 대통령, 코로나 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실시(6.24~7.8)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파운드, lbs)	가격 (달러/톤)	기타
황다랑어	20 lbs 상	2,190	
	7.5~2 lbs	1,140	
	4~7.5 lbs	1,040	
눈다랑어	20 lbs 상	1,090	
	7.5~2 lbs	1,090	
	4~7.5 lbs	1,040	
가다랑어	7.5 lbs 상	1,090	
	4~7.5 lbs	1,040	
	3~4 lbs	890	

마.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세네갈 다카르항 내 공급가	경유 337 유로 / MT	'20.6.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동향

- 7월 둘째 주 해외에서 항공편으로 귀국한 자국민 3명 확진으로 비상, 같이 입국한 탑승객 105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 학교는 개학하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오픈되었으나 항공편 재개는 내달 초가 되어야 결정될 것 같으며 통금은 여전히 시행중이다.
- 관광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피지 내 각 리조트가 평균 100~200명 정도의 직원을 해고하고 있으며 공항공사 ATS도 280명 이상의 직원 해고했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 (달러/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2,90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TOTAL	\$805/ kl	'20.7.9



변경대 미얀마 명예해양수산물



변경대
명예해양수산물

가. 미얀마,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미얀마 해역 수산해양지도 작성사업 시행

- 미얀마 수산 전문가들은 지난 4월 노르웨이 해양과학자 팀과 같이 미얀마 해양 수산물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고 수산청은 밝혔다.
- 두 나라의 전문가들은 노르웨이 해양 연구 선박인 Fridtjof Nansen 호를 타고 미얀마 해역에서 해양 환경지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 “조사는 4월 28일부터 6월 21일까지 5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미얀마 연근해 수산물의 분포와 그 종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해양수산부 차관 U Khin Maung Aye이 화요일 양곤에서 열린 수산관계자와의 회의에서 말했다.
- 이는 미얀마에서 수행된 네 번째 연구 사업이며, 노르웨이 개발 협력기구(NORAD), 해양 연구소(IMR) 및 EAF- 난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도 참여했다고 수산청은 밝혔다.
- 1979년부터 수산청은 미얀마 해역에서 수산물 자원량, 최대 지속 가능한 어획량 및 해류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는 1980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었고, 세 번째 조사는 2013년 11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되었다.
- 1993년에 건조된 1,444톤의 Fridtjof Nansen호는 노르웨이 개발협력기구가 소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실과 수중 음파 탐지기, 해수 샘플링 시스템 및 기상 관측기구를 포함한 과학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

가. 조업 동향

-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에서 연승선 평균 어획량은 날개다랑어 0.7-1톤, 황다랑어/눈다랑어 0.3-0.5톤.

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는 코로나19 관련 비상 상태를 7월1일부로 30일간 전월과 비상상태와 같으나 학교, 공공장소 단체 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해제했다.
- 항공편은 사모아(아피아)간 운항을 일부 제한 해제, 입국자는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하와이 항공노선은 7월30일까지 운항중지를 연장했다.

다. 참치가격 동향

회사명	어종	규격(kg)	단가(\$/MT)	기타
Star-Kist Santa Co	황다랑어	라운드	1,480	
	눈다랑어	라운드	1,280	
	가다랑어	라운드	1,280	
※ 가다랑어의 경우 선망선 가격 별도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2.12(gallon)	'20.7.9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

가. 코로나19로 수출 타격

- 코로나 사태로 인해 8주간 뉴질랜드 가재 수출이 3,800만 NZD 손해를 입었다. 이는 금액으로 산림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손해이며, 수출량 87% 감소를 의미한다. 항공으로 배송되는 가재는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한편 수산물 전반에 걸친 수출 수익은 2월부터 21% 감소했다. 중국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당 등이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 식자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낮다.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SQUID	2L	2,400	Sea Jho Co.Ltd
	L	2,400	
	M	2,200	
	S	2,00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Z	MGO \$528/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0.6.30
	LMFO \$450/MT (Timaru에서 공급 기준)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참치 선망선 Panofi Frontier

- 호 해적에 한국선원 5명 피랍
- Tema항의 안보부는 6월24일 Benin 해역에서 발생한 가나 국적참치선망선 PanofiFrontier 호의 한국선원 5명, 가나 선원1명의 피랍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 피랍된 선원은 한국인 간부 선원인 선장, 기관장, 1항사, 1기사, 갑판장 5명이며, 가나 선원 1명은 조리사로 Benin의 상업수도인 Cotonou항의 60마일 해상에서 해적의 습격을 받기 전 선박에는 총 30명의 선원이 승선했다.
- Tema항의 해양경찰청장 Mr. Joseph Antiwi Ababio는 현재 해군, 국가보안부, 항만보안부 등 지역 관련 단체들과 함께 Interpol의 Abidjan 사무국 및 다른 연관 기관들과 연락을 취하며 피랍 선원을 구출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 Abidjan의 Interpol에서 가나 관련 단체에 피랍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가나 해군이 구출작전을 선도했다.
- 가나 해군은 가나-토고 해역에 함선을 파견하여 습격당한 어선을 수색 발견하고, 어선에 잔류 승선 중인 24명의 선원들과 선박을 함께 선도하여 6월 26일 Tema항 표박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 해양경찰청장은 범죄 전문가들이 초등 수사를 시작 했지만, 피랍된 6명 선원들의 소재가 묘연한 가운데, 해적들이 선장 등 외국 간부선원들만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곧 인질들의 몸값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같이 피랍된 가나인 요리사는 피랍기간 중 한국 피랍선원들을 위한 요리가 필요하여 덤으로 데려간 것으로 추측된다고 언론에 밝혔다.

- 탄흔 조사검사관은 선체의 어느곳에서도 탄흔을 발견할 수 없어, 해적들은 애초에 피랍을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나. EMMCC 원양어선들에 해적 주의보 발령

- 수도 Accra에 위치한 Ecowas Multinational Maritime Coordination Center (EMMCC) Zone F 본부에서 피랍 사건에 즈음하여 기니만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에 해적 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 어선들에 대한 해적의 공격이 증가되고 있으며, 해적의 공격 대상으로 어선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 돌이켜보면 올 5월 3일 어선 Amerger1과 Amerger2로부터 3명의 선원이 Gabon EEZ 내에서 해적의 공격으로 피랍되었으며, 이는 중국 트롤선 Hai lu fung 11호가 코트디부아르 EEZ 내에서 선박이 피랍된 이후 연이어 발생했다.
- 이번에 피랍사건이 발생되면서 이제 해적들의 주 공격대상이 어선으로 변경되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 어선에 대한 이 새롭고 강력한 해적들의 공격에 대하여 Zone F 국가들, 특히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는 각국의 모든 원양어선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별도의 방어책 마련을 권했다. 모든 어선 운송수산사 들은 각자 어선들과의 정기적인 교신을 통하여 지속적인 주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고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기니만에 청해부대 파견 요청 건의

- 2018년 3월 발생한 가다랑어 채낚기 어선 월드마린 711호 선원 피랍사건 시 대한민국 정부는 문대통령님의 즉각적인 인질 구출작전 지시로 아덴만에 파견되었던 청해부대 소속 문무대왕함을 기니만 해역으로 급파하여, 인질 석방 협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 한국 선원들이 무사히 구조된 경험에 있다.
- 이전의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전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고대한다. 국제적인 정치적 문제가 없다면 이제 다국적 군함들이 경비하는 아덴만 주위보다 여기 한국의 원양어선들이 많이 조업 중이면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적 출몰 해역이 된 기니만에 청해부대를 파견하여 주는 것이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며, 가족들과 수년간 헤어져 외국의 수산자원확보에 헌신하는 한국 선원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의 이름으로 건의 드린다.

라.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 위기

- 어업 가치 사슬도 사회와 공동체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각종 후원이 대폭 감소되어 Pandemic에 의한 또 다른 충격이 되고 있다.
- James town의 어부인 Mr. Mensha Attoh는 수산양식개발부에서금어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팬데믹이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금어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지난 1월 기본적인 협의 이후 아직까지 발표가 없다.



- 우리 어민들은 정부의 결정이 이미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어민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책정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마.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250	
	10kg 하	1,050	
가다랑어	3.4kg 상	1,400	
	1.8kg 상	1,350	
	1.8kg 하	1,300	
	1.5kg 하	1,050	

바.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기타
Ghana Oil	\$470/kl MGO	'20.6.30	육상급유
SK B&T	\$425/kl MGO	'20.6.30	양상급유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관

가. 인니 해수부장관, 해외취업 어선원 송출 모라토리엄 검토

- 최근 중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한 부당(학대)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인니정부는 6월부터 6개월간 어선원 해외 송출 모라토리엄을 검토하고 있다.

- 인니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약 2만4,000여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외국선박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최근 밝혀진 중국어선에서 일어나 인니선원에 대한 학대행위 내용

-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중국어선 Lu Qing Yuan Yu 623호에서 인니 선원 1명이 쇠파이프와 유리병으로 구타당하여 1.16일 사망 후, 소말리아 근해에서 수장된 건 조사중이라고 발표하였다.

- 중국 다롄 오션피싱 소속 참치 연승어선 Long Xing 629, Long Xing 802, Tian Yui 8호에서 일하던 인니선원 4명이 한국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이 사건을 접한 인도네시아 외무부장관 Retno LP Marsudi씨는 주인인 중국대사 Qiao Xian를 외무부로 초치하여 중국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 또한 인니경찰청 범죄수사단은 철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했다.

- 지난 6월 6일 인니선원 2명이 말라카해협 인도네시아 영해를 향해 중이던 중국 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7시간 만에 인도네시아 어선에 구조되었다. 이들은 알선업체로부터 한국의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중국어선에 끌려가 사기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어선에서 5개월간 일하는 동안 잦은 구타와 차별대우를 참지 못해 5일 오후 8시쯤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 중국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선원의 부당한 대우에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이 심각성을 깨닫고, 자국선원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해양수산부 어업총국장 Zulficar Mochtar씨에 따르면 Edhy Prabowo장관은 향후 적용될 절차를 수정하는 동안 모라토리엄을 요구했으며, 이 금지조치가 시행되면 정부는 해외 취업 어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한 취업알선 업체를 배제하여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 모라토리엄 시행 여부는 여러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려있어, 앞으로 두고봐야 할 사안이며, 다수의 인도네시아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의 어업회사들은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 이와는 별개로 작년 연말 경 인도네시아 외무부장관이 한국대사에게 한국 원양어선에 취업 중인 인도네시아 선원에게 연근해 어선에 취업중인 인도네시아 어선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임영식 임무관이 본인에게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청하여 :
 - 임금을 너무 인상하게 되면, 한국의 선주들이 경영압박을 견딜 수 없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 그 결과로 선주들은 다른 나라 선원들을 찾게 되므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취업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을 개진한바 있다.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관

가. 한국어선 입항 동향

- 2020년 1월 22일 세종호 출항후 현재까지 한국어선 입항선은 없음. 그리고 한국 채낚기 선박(30척)의 포클랜드 수역 조업이 6월 초순 종료되었으나, 그 이후 SPRFMO 수역으로의 연계조업 선박이나 PERU 입항선은 없다.

나. 페루 대사관 등 인사

- 주 페루 한국 대사 : 6월 23일 조 영준 대사부임

- 한-페루 (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공동 연구센터 박준용 신임 소장. 5월 1일 부터 근무 시작

다. 코로나 동향

- 코로나 비상사태, 6.26 대통령 담화를 통하여 7월 31일까지 연장됨. 그러나, 7월 1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해제되어 노약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성인들의 외출과 통행은 자유롭게 되었다.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통행금지 시간은 22:00시부터 04:00시까지로 변경되었다.
- 선박 입·출항은 특별규정 적용, 상선과 어선들의 입·출항과 통상적인 항내 업무는 가능하나, 국제간 항공편을 이용한 선원 입·출국은 계속 불가하다.
- 임시 국제 항공편 현황은 6월 29일 리마 출발-멕시코시티향 1편 출발. 미국 비자가 없는 동양인 위주로 출국. 1인 항공료 US\$ 515.
- 7월 3일 리마 출발-마이애미향 1편 출발. 항공료 US\$ 1,299. 7월 8일 리마-마이애미향 1편 예정. 7월 10일 리마-로스엔젤레스향 1편 예정. 1인 항공료 US\$ 1,299.
- 7월 1일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출발-리마도착. 1인 항공료 738 유로. 국제간 임시 항공편은 증가 추세이다.
- 7월 5일 페루 코로나 확진 302,718명, 사망 10,589명, 완치 193,957명.
- 7월 1일부터 쇼핑몰 영업재개 허용. 7월 1일부터 육로를 통한 지방간 이동가능(버스 및 자가용).
- 7월 15일부터는 국내선 항공편 운항 가능. 국제선 항공 운항은 8월중 재개 예정으로 남미 국가 간 협의 중이라는 교통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다.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PETROPERU	\$2.23 / 갤런 MDO	'20.7.6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관 성명 가나다순>



에콰도르 캔 가공업자·어업자 코로나19 부정적 영향 우려 코로나19로 인해 참치 조업선 및 어획량 감소

에콰도르 TUNACONS사의 임원인 Guillermo Morán은 『현재 남미 국가들은 만타항에 들어오는 참치 원물의 공급량이 적고 참치캔 생산량이 평상시보다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선원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취해진 의무 검역 등 관련 조치로 인해 선방선 대부분이 항구에 정박했기 때문이다.

Atuna에서는 5월 13일에 이러한 이유로 최소 15척의 선박이 조업을 중단했고 최소 4명의 만타 선원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도했었다.

Morán은 『동부태평양 조업 조건은 나쁘지 않지만 조업 선박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원 교대도 어려운 상황으로 많은 선원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승선을 기피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가공 공장은 이러한 어업 노력 감소로 인해 참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재고에 의존해야 했다. Morán에 따르면 에콰도르 선박의 50~60%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시점에 조업을 중단해야 했다고 한다.

Morán은 『우리는 문제가 악화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대양(중서부태평양, 대서양)에서 만타로 오는 원재료의 공급도 저조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양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국내 소비용으로 가공되는 반면 동부 태평양 참치의 대부분은 EU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7월 31일부터 동부태평양 어장폐쇄가 시작되면 현재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치 선방선은 어장폐쇄(veda)가 적용되는 72일(1년) 동안 반드시 조업을 중지해야 한다. Morán은 2020년 말까지 많은 선박의 조업 중지 일수가 12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첫 3개월 동안 동부태평양 어획량은 평상시보다 20%나 많아 에콰도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할 때쯤 캔 가공업자들의 재고가 가득찼었던 것이 현재까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라틴계 캔 가공업자들은 EU 참치 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에 EU로 역대 가장 많은 12만톤을 수출했다. Morán은 올해 모든 참치 제품 수출의 감소가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8일자

황다랑어 어가 빠르게 회복 톤당 2,100 유로에 거래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악재로 황다랑어 가격은 급락했다. 하지만 인도양에서 문순 계절이 시작되면서 어가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양에서 냉동 황다랑어 원물은 현재 톤당 2,100 유로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6월 중순에 조사한 가격보다 300 유로 상승한 수치이다.

소식통은 앞으로 몇 주 동안 황다랑어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3일



방콕 가다랑어 어가 FAD 금지 이후 천천히 상승 1,250 달러 수준, 동부태평양 및 인도양 생산량 감소도 영향 미쳐

방콕 가다랑어 어가는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며 얼마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었지만 이제 약간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Atuna는 3주 전에 방콕 가다랑어(1.8kg 이상) 어가 수준이 캔 가공업체들과 트레이더(중개업자) 사이의 줄다리기 때문에 톤당 1,200 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상황이 약간 달라졌다. 이전과 같이 캔 가공업체들은 여전히 원물 가격 하락 압박을 가하고 있고 트레이더들은 가격 상승에 애쓰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트레이더가 말하는 가격 상승이 약간 더 타당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래는 톤당 1,200~1,300 달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7월에 운송된 가다랑어 원물을 1,300 달러에 구매했다고 언급했다. 시장 평균 가격은 톤당 약 1,250 달러로 이전보다 4% 이상 높은 수치이다.

한 캔 가공업자는 지난 2~3개월 동안 가격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레이더들이 퍼트린 원자재 부족 공포감이 만연해 있다』며, 『FAD 금지가 7월 1일에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동 조치로 인한 참치 부족을 우려하고 있지만 트레이더들은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동부태평양에서의 어장폐쇄(veda)가 가격 상승의 변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타의 상황은 방콕과 같은 세계 기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에콰도르 어선에서 다수 선원이 코로나19에 감염

된 영향으로 에콰도르 선박 다수가 조업을 중단했다. 그 결과 많은 선망선들이 조업을 중단했고 만타에 가다랑어 공급이 부족하게 됐다.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동쪽 인근(남미와 더 가까운)에서 전제하는 트레이더들과 선주들은 남미 어가 수준이 방콕보다 100~150 달러 이상 높을 경우 에콰도르나 멕시코 수출을 고려할 수 있다.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인도양의 스페인 어선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정박해 있어 방콕 캔 가공업체들은 중서부태평양 공급 물량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방콕 소식통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은 잦아들었다고 언급했다. 팬데믹은 더 이상 도시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다랑어 공급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선망선 읍서버 승선을 포기하고 해상전제를 허가하여 문제가 제거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일시적인 조치가 다시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시의 참치 냉동 창고는 현재 70~80% 채워져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바이러스 완화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캔 가공공자의 생산량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9일자





도요스 6월 신선 대물 입하 32% 감소한 1,691마리 호주 천연 남방참다랑어 출회 침체, 눈다랑어도 200마리 하회

일본 시사통신사가 집계한 도쿄 도요스 시장 6월 신선 대물 매장, 수입산 입고 마리 수는 1,691마리로 전년 동월 대비 31.6% 감소했다. 멕시코산 양식 참치(참다랑어)와 호주산 천연 남방 참다랑어 출회가 크게 침체되고, 눈다랑어도 200 마리를 하회하는 등 전년을 크게 밀돌았다.

참다랑어 전체 개수는 257 마리로 31% 감소했다. 양식 멕시코산이 70마리(전년 동월 246 마리)로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던 것이 주원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입량 자체가 격감한데다 「수고모리(집안 속에 틀어 박혀 있기)」 수요 등으로 호조를 보였던 택배 스시점용 장외 거래가 우세했던 것으로써 시장 경매용 집하는 고전했다.

시세는 모두 미발표이지만 100kg 가까운 사이즈는 인기를 끌고, 경매에서는 대개 kg 당 2500엔 전후에서 거래된 모양이다. 반면 천연물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어기가 종료한 그리스산이 84마리(전년 동월 입하 없음)로 집계된 외에 뉴질랜드(NZ)산도 34마리(지난해 동월 19마리)로 증가했다.

입하예가 별로 없는 정치망물 중심의 한국산도 17마리가 입하되었다. 또한 사이프러스산 43마리(지난해 동월 44마리)로 전년 수준이지만 보스턴산 5마리(전년 동월 29 마리)로 감소했다.

그리스산은 수온 상승시기까지 어기가 늘어나 품질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수입 업체들의 평가가 나빠졌다. 경매 가격이 붙은 것은 40% 정도로 평균 가격은 2,806엔이었다. 잔품으로는 500엔 정도의 처분 품도 있었다고 경매 참가자들은 말했다.

보스턴산의 감소는 현지 공급업자가 일본에서의 판매 부진을 예측, 연승물과 낚시물에 한해 7월 중순까지 어업자로부터 매입을 하지 않는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입하된 5 마리는 모두 이 협정에 포

함되지 않는 어획물로 고선도이지만 지방이 얇다는 평가를 받아 경매가는 전년을 밀돌았다.

인도 전체 마리 수는 1,235마리로 27% 감소했다. 천연물은 뉴질랜드산이 910마리(전년 동월 952마리)로 전년을 다소 밀돈 정도이지만 호주산은 어기 시작이 늦어지면서 293마리(전년 동월 641 마리)로 전년도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또한 모든 직항 편 운항 중지 등으로 제3국을 경유한 입하가 계속되어 운송 비용 증가도 있었던 것 같다.

천연물은 이밖에 케이프타운산 30마리가 입하되었다. 거래는 뉴질랜드산은 겨울철을 맞아 지방질이 좋은 상품품이 증가하여 평균 가격은 2,929엔(전년 동월 3,099엔)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 지중해산 천연 참치 가격을 웃돌았다.

한편 어시장 도매업체에 따르면 호주산은 뉴질랜드산에 비해 지방질이 떨어진 것이 눈에 띄어 경매 평균 가격은 2,113엔(전년 동월 2,413엔)으로 뉴질랜드산과는 차이가 벌어졌다. 양식물은 호주산이 2마리(전년 동월 77 마리)만 입하되었으며, 전월 판매 부진으로 집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눈다랑어는 전체 195 마리로 45% 감소했다. 마살산이 불과 6마리(전년 동월 78마리)로 급감했으며, 인도네시아(전년 동월 25마리)와 타히티(전년 동월 23 마리)산 입하 격감도 영향을 미쳤다. 가장 많았던 호주산도 79마리(전년 동월 83마리)로 전년을 약간 밀돌았다. 호주산은 적도 부근을 어장으로 하는 아카미(赤身)계 비율이 증가하면서 경매가 이뤄진 65 마리 평균 가격은 1,738 엔으로 10% 가까이 떨어졌다. 상품품 중심인 케이프타운산은 62 마리(전년 동월 82 마리)로 감소했지만 경매가 이뤄진 60 마리의 평균 가격은 2,268 엔으로 15% 떨어졌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13일자



중서부태평양 FAD 금지는 가다랑어 가격에 어떤 영향?

레보브 7 8월에 시작 사스 8 9월까지 3라 페터

중서부태평양 수역 EEZ와 공해에서 열대 참치 선망 FAD 조업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지된다. FAD 금지 조치는 일반적으로 방콕 시장에 공급되는 가다랑어 냉동 원물 공급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해 가격에 영향을 준다.

현재 태국 캔 가공업자와 주요 무역업자 간의 가격 전쟁으로 가다랑어 원물 가격은 1,200 달러 주위를 맴돌고 있다. 소식통들은 태국 냉동 창고가 현재 만고 상태이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천천히 재고가 소진되고 중서부태평양에서 유입되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환적 문제가 발생했던 몇 달 전과 달리 원물 자체 공급 지연 우려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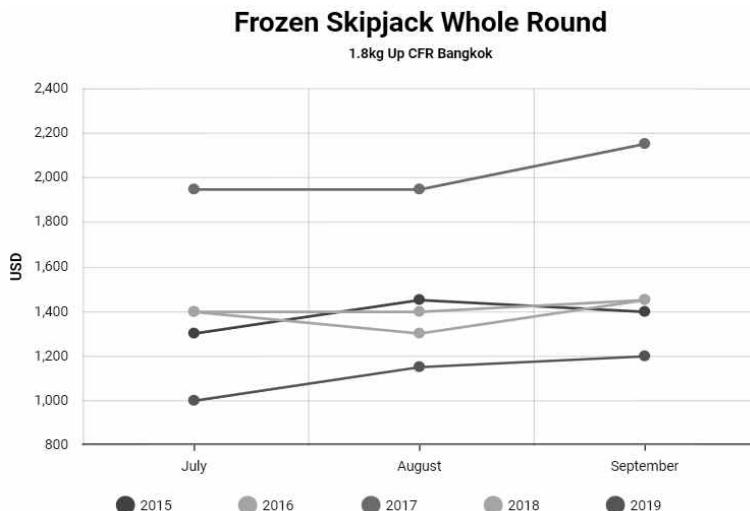
가다랑어 원물 가격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2018년을 제외하고는 7, 8월에 상승했다. 지난해 가격 수준은 6월 1,000 달러, 8월 말 1,300 달러, 9월

1,200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5년 동안 가다랑어 가격은 대부분 7, 8월에 오른 후 9월말까지 하락했다. 태국 캔 가공업자들은 일반적으로 3분기에 구매를 줄여 재고를 소진하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FAD 금지, 전미열대다랑어참치위원회(IATTC) 어장 폐쇄(veda) 기간이 끝난 직후 원물 가격이 낮아질 때 까지 구매 시기를 기다린다.

선박들은 중서부태평양 FAD 금지 기간 동안 참치가 군집하도록 FAD를 놓아둔다. 금지가 풀리면 선박들은 FAD가 있는 곳을 찾아가 쉽게 참치를 어획할 수 있다. 선망선은 각 FAD에서 70~80톤 정도를 어획할 수 있어 1,500톤급 선망선의 경우 2~3주 안에 만선이 가능하다.

곧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참치를 전제한 운반선들이 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1일



다가오는 어장폐쇄 기간 영향으로 만타 어가 소폭 상승

1 250~1 300 달러 수준에서 거래

에콰도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2월말 이후 만타 가다랑어 어가는 꾸준히 하락했다. 하지만 첫 회복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만타 가다랑어는 톤당 1,250~1,30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어 4월말 1,100달러보다 12~15% 상승했다. 어가는 5월에 1,100달러, 6월에 1,150달러 수준이었다.

소형 참치는 항구에 하역되고 있으며 캔 가공업자들은 7월 31일 첫 어장폐쇄(veda)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참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캔 가공업자들은 공급 유입이 충분하지 않아 재고를 소진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veda 기간 동안 현재 가격 수준의 유지이다. 하지만 상황이 예년보다 아주 특이한 올해, 동부태평양 어장 폐쇄가 참치 어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8일자

EU 인도양 어선 2020년 황다랑어 쿼터 못 채울 듯 검역으로 인해 빅토리아항 정박 어선들, 빠르면 10일부터 조업 시작

아프리카 선원들에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세이셸 빅토리아항에서 정박하며 검역을 받던 참치 선박들의 검역 기간이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해를 고려하기 전에 다시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한다. 감염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가장 빨리 항차를 나갈 수 있는 날은 다가오는 10일이다.

어업 중단의 여파는 엄청나며 인도양 참치 산업에 재앙이 될 수 있다. EU 선박들은 올해 황다랑어 쿼터를 채울 수 없을 것이다. EU-세이셸 어업 파트너 협정 체결 지연으로 만료된 후 다시 실행되기까지 거의 2개월 걸렸고 몬순 계절로 인해 선망선들이 항구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선박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도양 가공업자들에게도 타격을 준다.

현재 원재료 공급이 정지되었고 가공 공장은

재고 회전율이 높은 상태로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 선망선들이 10일에 항구를 떠나면 항구로 돌아오기까지 적어도 한 달이 걸린다. 몇몇 소식통은 모리셔스에 있는 Princes Tuna와 세이셸에 있는 IOT 가공 공장이 긴장하고 있으며 원재료를 가능한 한 많이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장들의 평상시 하루 생산량은 250~300톤이었으나 이미 100톤 미만으로 줄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선원을 교대하지 않은 몇몇 선박만이 현재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고 현재 공식적인 가다랑어 어가가 없는 상황이다. 선주들은 공급 부족으로 어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언제 오를지 의문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7일



태평양 도서국들 안정적 수입은 조업일수 뿐

RMI, FSM, 팔라우, 올해와 내년 재정 악화 예상

태평양 도서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 및 무역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참치 라이선스 수입은 여전히 매우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남아있다.

최근 미국의 경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 (EconMAP) 대학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이크로네시아(FSM), 마셜 제도(RMI), 팔라우가 받을 경제적 영향에 대해 초기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2021 회계연도 또는 질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3개국의 여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0'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행, 운송, 수산업 분야에 대한 재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셜 제도 어업 재정 수입 감소 예상>

조업일수제도(VDS) 도입으로 빠르게 증가한 재정 수입은 마셜 제도에 필수적이다. 현재 마셜 제도의 조업일수는 총 3,000일이고 올해 800일이 거래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2021년에 조업일수 단가가 8,000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고 마셜제도 해양자원국(MIMRA) 기금은 400만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읍서버 프로그램 일시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 회계연도에 어업 재정 수입이 3,000만 달러에서 2,200만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셜 제도에서 관광과 식당 분야의 경제 기여도는 GDP 대비 2.3%로 아주 미약하다. 2018년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마셜 제도의 총 GDP는 2억 2,130만 달러이다.

MIMRA는 관상어 수출, 참치 로인 공장 운영, 참치 선망 운영, 육지 기반 연승 어업 지원 분야에서

이미 30~50% 정도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716개의 직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셜 제도 인구는 총 5만 8,413명이다.

<마이크로네시아 2020년 참치 재정 수입 확보>

마이크로네시아는 현재 조업일수 약 7,300일을 할당했다. 보고서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거래된 조업일수 단가 1만 1,000 달러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숙박, 식당 산업은 2020 회계연도에 46% 감소, 2021 회계연도에 추가로 75%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찬가지로 해운, 항만 서비스, 항공 등 운송 분야는 2020 회계연도에 27% 감소, 2021 회계연도에 추가로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 회계연도에 총 재정 수입이 4.9% 감소하고, 2021년에 추가적으로 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에 비해 고용 수준이 11% 감소하고 1,841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팔라우 관광 분야 심각>

마셜 제도나 마이크로네시아와는 달리 팔라우는 관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9년에 9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고 관광 산업이 GDP의 20%를 차지했다. EconMAP은 2020 회계연도에 팔라우가 51%의 관광객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총 관광객 수는 4만 4,075명이며 2021 회계연도에는 89%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GDP는 22.3% 감소할 것이며 일자리는 3,128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팔라우 총 인구는 1만 7,907명으로 국민의 17%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2일



옵서버 사망에 대한 보고서 논란

HRAS 발표 보고서에 PNA, MSC 강력 부인

Atuna는 7월 3일에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해상인권(HRAS)에서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옵서버 사망에 초점을 두고 있고 MSC와 PNA 국가들 그리고 옵서버 죽음과 연관된 5척의 선박에 비난의 손가락을 겨누고 있다.

MSC와 PNA는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참치 산업계에서 잘 알려진 인사가 자금을 지원했다.

옵서버 안전과 노동 안전이 참치 산업에 있어 최우선 과제가 아니었고 이 문제는 올해 3월 3일에 대만 국적 선방선 'WIN FAR NO.636'에 승선했었던 키리바시 옵서버 Eritara Aati Kaierua씨의 사망으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경찰은 동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으며 용의자는 키리바시에 구금되어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현지 정부 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있으며 대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HRAS는 이 보고서의 목적이 옵서버 사망 사례를 수집·검토하고 사망 사건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며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연구가 영국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식품을 공급하는 World Wise Foods에서 지원했다는 점이다. World Wise Foods는 몰디브와 인도네시아에서 채낀기로 어획한 참치를 거래하는 주요 무역상이다. 국제채낀기재단(IPNLF)의 이사장인 John Burton은 World Wise Foods의 주요 주주이자 CEO이다.

PNA의 Ludwig Kumoru CEO는 7월 3일에 이 보고서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보

고서는 다년간에 걸친 다양한 사망과 다른 혐의 사실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왜곡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일부는 심지어 PNA 지역 내에서도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인도양에서 채낀기로 어획한 참치를 공급하여 제국을 건설한 Burton의 의도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낀기 어업은 옵서버 커버리지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황으로 인권 유린 사례도 여러 건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따라서 역설적으로 그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우리 지역이 Burton과 관계된 그룹 또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타겟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옵서버 죽음과 연관이 있는 선박이 5척으로 'WIN FAR NO.636', 'Dolores 838', 'Western Pacific', 'Feng Xiang 818', and 'Yu Wen no 301'이라고 밝히고, 현재에도 PNA의 MSC 인증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고 적혀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MSC,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 국제채낀기재단(IPNLF) 등이 그들의 사업에서 보이고 있는 인권에 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에서 명확한 점은 HRAS가 MSC와 PNA 어업에 대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노동 학대 측면에서 투명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연관지어 'guilty by association(상황 또는 사람과 연관하여 유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3일



열대 참치 타겟 대형 선망선 척수 지속 증가 전 해역 대형 선망선은 787척으로 작년 대비 7척 감소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이 수집한 참치 관련 지역수산기구의 선박 등록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선망선 척수는 100척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대형 선망선 척수는 약간 감소했으나 열대 참치를 타겟으로 하는 선박은 오히려 증가했다.

모든 지역수산기구, FAO 등의 자료들을 통합하여 전 세계 대형 참치 선망선에 대해 ISSF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선망선 척수는 2019년 1,843척에서 올해 1,721척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감소한 주요 이유는 ICCAT 관할 동부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참다랑어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 및 중형 선박(전장 30m 미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 선망선 척수와 선적량은 전체 선망선 척수 감소만큼 줄지 않았다. 지역수산기구들은 어창 용적에 따라 다른 선박 등급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ISSF는 대형 선망선 기준을 335m³ 이상으로 정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대형 선망선은 794척, 총 어창용적은 92만 6,923m³이며 2020년에는 787척, 92만 1,000m³로 현재 선박 척수는 감소했으나 평균 어창 용적은 더 커졌다. 대형 선망선 보유 국가 중 에콰도르가 척수 및 총 어창 용적으로 1위이다.

전 세계 대형 선망선 척수는 지난해 대비 7척 감소했지만 열대 참치(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를 타겟으로 하는 선박 척수는 696척으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했다. 총 어창 용적은 87만 4,201m³이다. 696척 중 17%는 하나 이상의 지역수산기구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등록된 대형 선망선은 349척으로 지역수산기구 중에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몇몇 소식통들이 WCPFC 수역에서 유효한 열대 참치 타겟 대형 선박은 약 250척 정도라고 말했다고 한다.

선박 국적별 대형 참치 선망선 보유 현황(2020.6)

(단위: 척, m³)

국가	척수	용적	국가	척수	용적	국가	척수	용적
에콰도르	85	85,045	이탈리아	16	8,661	퀴라소(CUR)	4	8,308
필리핀	69	58,366	나우루	14	21,686	리비아	4	1,645
한국	53	68,154	파푸아뉴기니	14	13,067	호주	3	1,434
일본	51	50,826	페루	14	7,149	모리셔스(MAU)	3	4,730
멕시코	48	60,573	콜롬비아	13	14,590	니카라과	3	4,855
스페인	33	57,735	세이셸	13	26,277	과테말라	2	3,702
대만	32	55,801	마셜제도	11	17,418	온두라스	2	3,332
프랑스	32	34,610	키리바시	9	12,963	라이베리아	2	3,076
파나마	28	38,602	솔로몬제도	9	5,257	튀니지	2	974
인도네시아	27	9,849	벨리즈	8	8,483	투발루	2	3,507
미국	27	44,853	이란	8	11,296	브라질	1	362
마이크로네시아	25	31,710	엘살바도르	7	13,371	카보베르데	1	2,200
중국	24	28,292	세네갈	7	10,436	쿡제도	1	1,160
터키	23	12,931	바누아투	6	11,500	뉴질랜드	1	1,273
베네수엘라	23	30,313	크로아티아	5	2,204			
가나	17	25,956	모로코	5	2,497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6월 23일자



인도양 스페인 참치 선망선 코로나19로 50% 정박 교대 위해 세이셸에 온 선원 중 70명 확진

세이셸에서 조업하는 스페인 선박과 관련한 선원들의 코로나19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로 여러 척의 참치 선망선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빅토리아항에 정박해 있다. 지방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선원들이 육지에서 치료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주 Atuna는 세이셸에서 유일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선원 교대를 위해 세이셸에 도착한 선원에게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당시 확진자는 9명이었으나 현재는 70명으로 증가했다. Faro de Vigo 언론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든 감염 사례는 기존 선원들과 교대할 세네갈 및 코트디부아르 출신 선원 207명으로부터 비롯됐다.

당국은 향후 며칠 내에 선박 내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테스트가 약 200건 실시되었다.

선원들 사이에서 이런 엄청난 숫자의 확진은 20척 이상의 선망선이 조업을 중단하고 항구에 머물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감염된 선원들은 정부가 육상 치료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의학적

치료를 위해 선박으로 보내지고 있다.

스페인 참치 회사인 Echebaster, Albacora, Atunsa, Pevasa, Inpesca는 모두 인도양 조업 선박을 가지고 있으며 총 척수는 43척이다. 현재 거의 50%가 조업이 중지된 상태이다. 세이셸 공중보건 당국은 이번에 신규로 세이셸에 도착해 현재 선박에 승선해 있는 선원들을 전원 재검사하기로 결정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박들은 의무적으로 정박해야 한다. 게다가 인도양에서 문순 계절로 인한 악천후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많은 선박들이 항구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인도양에서 많은 수의 선망선들이 갑자기 조업을 멈추면 당연히 이 지역의 참치 가공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이셸에는 큰 규모의 냉동 창고가 없기 때문에 세이셸의 캔 가공 공장인 Indian Ocean Tuna는 선박들로부터 원어를 지속적으로 직접 공급 받지 못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6월 29일자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일본 해외선망협회, 국제 경쟁력 있는 어선으로 代船 건조 추진

국제 어장 환경, 승조원 부족 등으로 대형화 필수적

일본 해외선망협회는 앞서 통상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 계획 중 어장 확보와 함께 2개 축이라고 할 代船 건조 대책은 다음과 같은 상황 인식 하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어선으로 代船 건조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의 해외선망 어선 세력은 2012년 8월의 지정 어업 허가 일제 갱신 시 눈다랑어 혼획 삭감을 목적으로 허가된 3척, 시운전으로 허가된 日本丸(닛폰 마루), 또한 돈되는 어업 프로젝트로 허가된 개혁형 선박 2척, 그 후 돈되는 어업 프로젝트로 허가된 3척 1중척 등 총 7척이 이른바 국제 표준 선형 760톤(국제 톤수 약 1,800톤)으로 건조되었으며, 현재 3척이 건조 중이지만 그 외는 499톤(국제 톤수 1,400톤), 349톤(국제톤수 1,400톤)으로 제한되어있다.

그런데 여러 다른 나라들은 일본처럼 계층 제한 같은 규제는 존재하지 않고, 국제 표준 선형 어선이 중심 세력으로 있으며, 심지어 일부 유럽 어선처럼, 3,000톤을 상회하는 초대형 선도 조업하고 있다.

또한, 나우루협정 체약국 그룹(PNA)의 선박조업 일수제도(VDS)에 의한 입어료 지불 기준은 전장 80~50미터이면 동일하며, 선형에 의한 입어료 차이가 없기 때문에 VD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상황에서 대형 선박이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표준 선형으로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 속에서 해외선망어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여겨져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2017년의 지정어업 허가 일제 갱신에서

349톤형 계층1의 해외선망어선 1척의 폐업 맞보기로 해외선망어선에 부가되어 있는 제한(어장 용적 또는 어획량 제한)을 3척까지 해제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졌었다.

일본 해외선망 어선은 2020년 4월 현재 28척 중에서 선령 20년 초과가 16척, 이중 25년 초과가 12척이고, 3척이 30년 초과로 노후화가 눈에 띄고 있다.

이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최대한 빨리 대체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에는 국제 어장 환경에 적응하고 거주 환경도 개선한 표준 선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근의 승무원 부족 현상을 감안해도 이는 필수적이다.

<장기 대선건조 계획에 따라 7척 대형화로 건조>

2017년 4월에 결정된 수산 기본 계획에서는 어선의 고성능화, 대형화에 따른 거주 환경의 개선과 안전성 향상 등이 필요하고, 고 선령 어선의 代船 건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어업 단체가 장기 건조 계획을 제시할 것이 요구되는 동시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외선망어업 장기 代船 건조 협의회를 설치해 2018년 4월에 7척을 대형화하고 代船 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외선망어업 장기 代船 건조 계획을 책정, 수산청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향후는 이 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代船 건조를 진행시켜 나간다.

※ 기사 출처: 일간 가츠오-마구로통신 2020년 6월 15일자



냉동 가다랑어 소형 중심으로 시세 약세

가다랑어 포용, 코로나 감염병 재난으로 거래 둔화

포나 통조림용 냉동 가다랑어 시세는 소형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시즈오카 야이즈어협에 따르면 6월 16일 현재 해외선망 어선 브라인 동결품(B)의 시세는 1.8kg 이상 사이즈가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한 kg당 131~140엔이었다, 1.8kg 이하 사이즈는 8% 하락한 125엔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영향으로 업소 용이나 외식용 가다랑어 포 제품 거래가 매우 침체되었다고 가공업체 소식통은 말했다.

야이즈항의 위판량은 소형 사이즈가 많다. 야이즈항 5월 B 어획량 중 규격이 가장 작은 1.8kg 이하 사이즈는 전체의 30%가 되는 1,292톤이었다. 전년 동월의 5배가 되는 양을 어획했다.

한편, 2.5kg 이상은 36% 감소한 781톤에 그쳤다.

1.8kg 이하 사이즈는 『荒節(아라부시)로 하기에 작은 사이즈로 용도가 적다』고 가다랑어 포 제조업체 측은 말했다. 이 사이즈의 시세 하락 폭이 크고, 가다랑어 포용 2.5kg 이상 사이즈와는 50엔 정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야이즈항의 원양 일본조에 의한 어획량은 80% 이상이 근해 물인 날개다랑어였지만 6월 중순 들어 가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가공업체 측은 7월이 되면 원양 일본조 브라인 동결 1급 제품(B1)의 가다랑어 어획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2일자

냉동 가다랑어 국제 가격 하락 1,200달러

통조림 수요 일시 정체

가다랑어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 방콕의 통조림용 원료 시장(방콕 시장)은 6월 17일 현재 톤당 1,200~1,250 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등 전월보다 100~150 달러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영향으로 현지 통조림 공장의 가공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세계 통조림 수요가 일시 정체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시세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조업 양상은 양호하고, 방콕의 위판량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현지 통조림 공장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 인원을 감축해 원어

의 가공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감염병 확대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던 통조림 제품은 수요가 안정되기 시작해 통조림 업체로부터의 원어 거래 문의는 둔화되고 있다.

중서부 태평양에서 7~9월에 걸쳐 FADs를 이용한 조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어획량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7월 무렵까지 시세는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가공 업체는 밝혔다. 통조림업체로부터의 거래 문의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2일자



냉동 대형 눈다랑어 4개월 연속 하락, 30% 떨어진 600엔

인도양 대만 어선 뱃떼기 거래, 중형 눈다랑어도 10% 하락

냉동 눈다랑어 시장의 지표가 되는 인도양 대만 어선 일선매(뱃떼기) 구매 가격이 저조하다.

대형 눈다랑어(1마리 40kg 이상) 가격은 6월 초 kg 당 600 엔으로 전월 상순보다 50 엔 하락했다. 전년 동월 900 엔에 비해 약 30% 낮아졌다. 2월의 800 엔에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 갔던 시세는 5월에 일단 하락이 멈췄지만 다시 가격 수정을 강요당한 셈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에 따라 스시 점을 비롯한 음식점의 수요 감소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눈다랑어, 황다랑어도 「역사적 혈값」이라는 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도쿄 도요스 시장의 도매 관계자는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된 후에도 거래 움직임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어깨를 떨어뜨렸다. 눈다랑어 이외의 시세는 1마리 25kg 이상(중 눈다랑어)이 500 엔이었다, 15kg 이상은 400엔, 10kg 이상은 300 엔으

로 전월 동기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각 사이즈 모두 전년 동월보다 약 10% 저렴한 수준이었다. 가공용이나 할인점 등에서 잘라서 소진되고 있다.

인도양 대만 어선의 냉동 황다랑어 시세도 1마리 25kg 이상 500 엔, 15kg 이상 400 엔, 10kg 이상은 300 엔으로 전월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크기끼리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가격 차이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시즈오카 현 아이즈, 시미즈를 비롯한 각지의 초저온 냉장고도 만고(満庫)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보유재고를 가볍게 하고 싶은 도매 등 중간업체의 구매력이 떨어진데다 냉동 지중해산 참다랑어의 반입이 거의 끝났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감안할 때 이같은 현상의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2일자

돈 되는 원양 연승 두 가지 계획

일본 중앙협의회, 기계화 및 보급 지역 변경으로 비용 절감

어업 구조개혁 종합대책 사업(돈 되는 어업) 제 86회 중앙협의회가 6월 25일 도쿄 도내에서 열려 전국 원양 가다랑어 참치어업 협회(이케다 히로시 회장)가 신청한 전국 원양 참치 지역 프로젝트(게센 누마)와 같은 프로젝트(도야마 ③)를 승인했다. 게센누마의 프로젝트에서는 원양 참치 연승 개혁형 신조어선 도입 및 장치 제조 기계화 등을, 도야마 프로젝트에서는 보급 지역 변경에 의한 원양 참치 연승 비용 절감과 선동 뽕치 제조 등을 각각 진행한다.

게센누마의 원양 참치 연승 프로젝트에서는 승조원의 거주성을 고려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일반 선형·공통 사양의 개혁형 어선을 도입한다. 인력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바늘이 달린 줄에 묶는 작업을 기계화하는 등의 연구를 계속해 간다. 이밖에 오존층 파괴를 막는 냉매 사용, 어획물 부가가치화, 바닷새 혼획 방지 등도 추진한다. 계획 기간은 2021~2026년 도까지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9일자



유럽 소비자, 가격 보다 지속가능성에 더 큰 가치 두다 유럽어업인연합, 인권 침해 연루 선박 어획물 수입 금지 촉구

스페인 참치생산자협회(OPAGAC)는 Deloitte 사의 연구를 인용하며 유럽 소비자들은 이제 가격보다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전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EU 소비자들의 75%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소비 습관을 변화시켰다고 한다. 스페인의 경우 이 비율이 76%이다. 연구 결과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항목은 3.8점으로 선호 순위에서 5번째를 기록해 가격 3.7점에 비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선호 순위 1~3위는 신선도(6.8점), 맛, 건강상 이점(6.3점), 섭취 용이성(5.3점)이 차지했다.

이 연구는 1만 1,000명 이상의 식품 소매 업체 소비자 조사를 토대로 수행되었다.

유럽어업인연합(Europeche)은 지난 4월 30일 유럽이사회(EC)에 아시아 선박이 어획한 어류의 수입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럽어업인연합은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참치의 경우 때때로 관세 할당을 통해 수입 관세가 완전히 면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U는 2019년에 중국으로부터 7만 9,500톤의 참치를 수입했다. 스페인 참치생산자협회는 이 수입 물량이 유럽 참치 소비의 53%를 차지했으며 2012년에는 5%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유럽어업인연합은 정치인들이 인권 침해 연루 선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페인어업연맹(Spanish Fishing Confederation)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원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연승선을 상대로 한 규탄에 지지를 선언했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0년 6월 19일자





美 오징어어업 2개사 MSC 획득 두 번째로 아메리카 창꼴뚜기와 일렉스오징어

미국 동부 연안 해역에서 오징어 어업을 영위하는 2개사가 최근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아메리카창꼴뚜기와 캐나다일렉스오징어 어업으로 해양관리협의회(MSC)의 어업 인증을 공동으로 취득했다.

2018년에 미국 대서양 해역의 오징어어업이 세계 최초로 MSC 인증을 획득한 이후, 오징어 인증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인증을 획득한 회사는 Seafreeze Limited사와 Sea Fresh USA사다. 오징어 자원량을 충분히 유지

하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생태계를 남기고자 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캐나다 일렉스오징어 제품은 대부분이 게와 대구, 황새치 미끼로 다른 어업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외식 산업용으로 생산되어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다. 아메리카 창꼴뚜기는 주로 미국 외식 시장에 출하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13일자

일본 살오징어 5월 조업 1% 증가한 1,282톤

신선 2% 증가한 1,280톤, 냉동은 86% 감소한 3톤

일본 JF全漁連의 집계에 따르면 5월 일본 살오징어 전국 어획량(신선, 냉동 포함)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한 약 1,282톤이었다. 이 가운데 신선은 2% 증가한 1,280톤이었던 반면, 냉동은 86% 감소한 3톤에 그쳤다.

신선 물은 동해 지역에서 16% 증가한 1,157톤이 어획되었다. 돗토리, 사카이미나토를 제외한 주요 항구에서 전년 수준 또는 전년을 상회하는 어획이 있었고, 후쿠이에서는 전년의 3.5배인 186톤을 기록했다. 큐슈 지역은 23% 증가한 108톤이었다.

한편 산리쿠 지역은 91% 감소한 15톤에 그쳤다. 주요 항구인 아오모리 하치노헤의 어획량이

98% 감소한 3톤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5월 평균 kg 당 가격은 신선 물이 2% 하락한 592엔, 냉동 물은 29% 상승한 905엔을 기록했다.

최근 수년간 살오징어 어획량은 2016년 6만 4,000톤을 기록한 이후 감소해 2017년이 5만 4,000톤, 2018년 4만 2,000톤, 2019년은 3만 3,000톤으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었다.

다만 2020년 어획량은 전년 이상의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1~5월 누계 전국 어획량(신선, 냉동 포함)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5,257톤이었다.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7일자



살오징어 40% 감소, 처음으로 10만톤 아래로 떨어져 FAO 2018년도 오징어·낙지 통계 자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살오징어의 2018년 세계 어획량은 9만 7,000톤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통계 사상 처음으로 10만톤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10년간의 피크였던 2011년(41만 4,000톤)의 약 20%까지 감소했다. 주요 어획 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모두 생산이 줄었다. 2013년경부터 러시아 어획량이 눈에 띈다. 미국 아메리카 대왕오징어는 17% 증가한 89만 2,000톤으로 2년 연속 신장되었다.

페루가 36만 2,000톤, 중국이 34만 6,000톤, 칠레는 14만 5,000톤이었다. 집계에는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또는 무라사키 오징어로 불리는 Neon flying squid는 포함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마쁘이카(빨강오징어과)는 10% 감소

한 30만 1,000톤이 생산되었다. 아르헨티나가 10만 8,000톤, 중국이 10만 5,000톤이었다. 캘리포니아 오징어(캘리포니아 로리고)는 3만 7,000톤으로 41% 감소했다. 보일(boil, 삶거나 데치는) 제품 등에 이용된다.

한편 2018년에는 6% 감소하긴 했지만 증산 경향이 있는 것은 문어류다. 일본도 어획하는 문어(*Octopuses etc nei*)는 30만 2,000톤으로 8% 감소했다. 그 중 중국이 10만 8,000톤, 일본이 3만 6,000톤, 모로코가 4만 1,000톤, 모리타니아가 2만 9,000톤이었다. 멕시코는 일본에도 수입되는 Mexican four-eyed octopus 2만 9,000톤을 포함한 총 4만 4,000톤을 생산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6일자

도우토우 태평양 북상기 자원조사 결과 발표 쿠로시오 수산시험장, 사상 두 번째로 저조한 CPUE

道總研 쿠로시오 수산시험장은 6월 15일 도우토우(道東) 태평양 오징어류 북상기 자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있어서 살오징어 채낚기 기계 1대당 어획 마리수(CPUE)는 0.01을 기록해 지난해(0.05)를 하회,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조사는 6월 4일~11일에 쿠로시오 수산시험장 시험조사선 北洋丸으로 실시했다.

북위 41도 선상의 7개 조사점에서 어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간에 위치한 1곳에서 1마리를 어획했다. 사이즈는 외투장(外套長) 11.1cm로 지난 10년에 비해 소형이었다. 그 외 6곳에서는 어획

되지 않았다. 다만 7곳 가운데 5곳에서 오징어 채낚기로는 어획이 어려운 외투장 10cm 정도의 소형 살오징어 어군이 선상에서 눈에 띄었다.

어획조사를 한 7곳의 표면 수온은 14.3~16.0℃, 50미터 깊이 수온은 7.2~11.3℃ 범위에 있었다.

전체 7곳 가운데 6곳에서 지난해 수온을 상회, 거의 모든 조사 위치에서 살오징어 분포 기준이 되는 수심 50미터에서 10℃ 이상, 또는 그것에 가까운 환경이 되었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6월 18일자



일본 6월 신선 살오징어 어획 60% 증가한 4,000톤 일본 전국 주요 항구 양륙, 가나자와 어획량 2배로 증가

일본 어업 정보 서비스 센터가 집계한 6월 전국 주요 어항의 신선 살오징어 어획량은 3,951톤으로 전년 동월 6% 이상 웃돌았다.

월간 어획량이 4,000톤 가까이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5,100톤부터. 이시카와현 앞바다 연안 소형 오징어채낚기 조업 호조로 가나자와항 어획량이 약 2배로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다. 가나자와항에서의 양륙은 7월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6월 신선 살오징어 어획량은 가나자와 외 미야기, 이시노마키가 트롤에서 전년 동월 대비 2.8배인 186톤, 니가타가 3.3배인 182톤, 야마가타·사카타는 22배인 154톤이었다. 지난해 6월이 2톤이었던 홋카이도 히야마도 126톤의 어획량을 보였다.

주요 항구인 가나자와는 5월 하순부터 집계되기 시작, 6월 상순에는 1일 3만 상자(1상자 5kg) 이상을 어획했다.

이시카와현 수산종합센터에 따르면 6월 22일까지 이시카와현 어획량은 최근 5년 평균 어획량(1,344톤)을 80% 상회하고 있다. 이날 현재 주요 어장은 사이카이, 몬젠, 와지마 근해다. 7월은 3일 현재 태풍으로 양륙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시카와현 연안에서 조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니가타현 사도 이북에서는 본격적인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어장의 복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가나자와의 1상자 당 사이즈 별 구성은 20마리 들이와 25마리 들이가 중심이다. 6월 상순까지는 어

체가 약간 작은 편이었지만 현재는 예년보다 어체가 커지고 있다.

1~6월 전국 주요 항구의 어획량은 7,84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평균 단가는 494 엔으로 13% 하락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6일자





러시아 흰살 생선 대기업, 새로운 명태 슈퍼트롤선 진수 신조 선박은 극동지역에서 선상 냉동, 부가가치 제품 생산 예정

터키의 Tersan 조선소는 캄차카에 기반을 둔 OkeanRybFlot사가 발주한 새로운 원양 슈퍼트롤선을 진수했다. 신조선은 OkeanRybFlot사가 현재 보유한 선박 3척을 대체할 수 있는 조업 및 가공 능력을 가졌다.

신조선인 Georgiy Meshcheryakov호는 극동 조업구역에서 명태, 청어,

고등어, 오징어, 정어리를 조업하고 가공하기 위해 노르웨이 Skipsteknisk사가 개발한 ST-191L 디자인을 기반으로 건조되었다.

Georgiy Meshcheryakov호는 전장 108.2m, 폭 20m, 총톤수 8,300톤이다. 만(MAN)사의 추진 시스템에 2개의 7L 32/44CR 디젤 엔진(각각 4,080kW 파워), 2개의 9L 21/31 보조 디젤(각각 1,880kW, 900rpm), 2개 축발전기(각각 2,200kW PTO, PTI)를 장착했다.

또한 1000kW Brunvoll bow tunnel electric thruster를 장착하여 계류하는 동안 낮은 steaming 속도로 우수한 기동성을 제공한다.

선박은 Ice3 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체와 노즐은 ICE1A Super 급이다.

이 슈퍼트롤에는 150명의 선원이 승선할 예정이다. 선박의 냉동 어창은 3,900m³으로 2,500톤을 수



용할 수 있다. 냉각 해수 탱크는 250m³이다.

냉동 시설은 GEA Refrigeration사 제품으로 하루 450톤을 냉동할 수 있다. 2개의 어분 설비로 매일 110톤의 어분을 생산할 수 있다.

노르웨이 Optimar사의 선상 가공 시설을 설치하여 원물, H&G, 필렛 등 모든 명태 제품을 가공할 수 있다. 청어 플랩(flap), 고등어 필렛, 명란, 어분·어유도 가공이 가능하다.

신조 슈퍼트롤선은 2021년 5월에 시운전될 예정이며 뒤따라 같은 형태의 두 번째 선박은 6월 3일에 Tersan 조선소에서 착공되었다.

OkeanRybFlot사는 선박 건설비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식통은 총 8,500만 유로(9,650만 달러) 정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6월 24일자



러시아 올해 명태 TAC 추가 배정 결정

어획량 5% 증가 가능

러시아 연방수산청(Rosrybolovstvo)은 러시아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0년 명태 총허용어획량(TAC)을 증가시키기로 했다.

Western Bering Sea 조업 구역 명태 쿼터는 이전 수준에서 26.3% 증가한 39만톤, Primorskiy Krai 조업 구역 명태 쿼터는 58.5% 증가한 2만 8,700톤으로 결정됐다.

러시아 명태어업협회 Alexey Buglak 회장은 이번 TAC 증가로 어획량이 5%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명태 어업협회는 올해 상반기 러시아 총 명태 어획량이 123만톤으로 하반기에는 총 60만톤 어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Buglak 회장은 『증가된 명태 TAC는 극동 지역에 건설된 육상 가공공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내 명태 산업계의 재정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수산청은 추크치 해에 처음으로 6만

8,000톤의 명태 TAC를 배정했다. 하지만 러시아 명태 관계자들은 추크치 해에서 조업이 빨리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Buglak 회장은 『추크치 해는 기상 상태가 거칠고 동 해역에서의 조업 경험이 부족하며 명태 자원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심이 낮아 대형 트롤선은 조업이 불가능하고 소형 및 평균 크기의 어선만 조업이 가능해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조업이 이루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러시아 연방수산청에 따르면 러시아 2020년 'A' 시즌 극동 어업구역 전체 명태 어획량은 104만 톤(오호츠크해 95만톤)으로 작년에 비해 7.3% 증가했으며 TAC의 89.3%가 소진되었다. 6월 29일 기준으로 베링해 명태 하역량은 작년에 비해 15% 증가한 11만 5,000톤이었다. 2020년 러시아 총 명태 쿼터는 183만톤으로 오호츠크해에 120만톤이 배정되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7월 13일자

러시아 대기업 명태 가공공장 건설, 9월 가동 목표

러시아 국내에서 부가가치 상품 제조 위해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러시아 어업 대기업인 「루스카야 루이보프롬세렌나야 캄파냐」는 9월부터 가동 개시를 목표로 극동 연해주에서 명태 가공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새 공장은 하루 생산 155톤의 제품 생산 능력을 가지고 필렛과 민스(다진 어육), 밀(어분), 피쉬 오일 등을 생산한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명태 생산국이지만 어획물은 주로 원료(드레스)로 중국에 수출되고, 중국이 그것을 필렛 등으로 가공해 유럽 시장에 수

출하고 있다. 이 공장이 준공되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명태 고차 가공의 한 몫을 러시아 국내에서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국책으로 추진, 수산물을 국내에서 부가가치화하는 정책에 따른 프로젝트로 이 공장은 「선행발전 특구」와 정부의 새 투자장려책 「투자 쿼터」(국내 어선과 가공 공장 건설자에게 우선적으로 어획가능량<TAC>을 할당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아 건설된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6월 17일자



알래스카 명태 회사 임원들 평상시와 다른 어업 시즌 대비

B시즌 코로나 바이러스로 봉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격변을 감안하면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들은 비교적 정상적인 A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생산자들은 B시즌 조업에 들어가고 가공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기까지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다.

베링해 B시즌 조업은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어획량은 대략 75만 7,651톤 정도로 예상된다. 어획물은 주로 연육, 잔가시 제거 필렛(pinbone-out, PBO), 껍질과 지방층 제거 필렛(deep-skin) 형태로 가공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식품 서비스 분야를 망가뜨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더 그렇다. 생산자들은 여전히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공급이나 수요에서 아주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주요 생산자들은 현재 B시즌에 어획된 명태로 가공한 PBO 필렛의 평균 가격이 톤당 약 3,600달러(3,190 유로)라고 한다.

아직 조업 척수가 많지 않지만 한 주요 생산자는 『지금까지 어획한 명태의 크기가 크다』며 『마리 당 800g 정도』라고 말했다.

많은 생산자들은 PBO 가격이 A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대형 알래스카 명태 조업 회사의 한 임원은 『공급 안정성에 큰 변화가 없고 수요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되지 나타나지 않아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평상시의 사업 형태와는 거리가 멀

지만 제품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구매자들이 식품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PBO 및 deep-skin 필렛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유럽, 영국,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쇄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식품 서비스 부문이 침체되었으나 명태 기반 제품의 냉동 소매 판매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유럽 냉동 어류 가공업자들은 알래스카 명태와 같은 어종의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며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Nomad Foods사 및 Young's사와 같은 주요 생산자들은 냉동 소매 제품 판매 급증 현상이 계속되기를 희망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6월 20일자



미국 수리미 4월부터 하급품 30엔 하락

10% 감산에도 고가 반동(反動)

미국 명태 B시즌(후반)이 시작되었다. 지난 5년 명태 수리미는 연 20만톤 전후의 높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올해 주요 어장인 베링해/알류산 해역(BSAI)의 명태 총 TAC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144만톤이다.

A시즌(전반)의 어획 생산량은 8만 1,000톤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어체는 대형으로 어란(魚卵) 비율이 높고, 수리미 수율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전반기는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확산 영향을 받아 수리미를 선상 가공하는 미국의 각 공모선과 육상 공장은 코로나 대책을 실시, 큰 혼란은 없었던 것 같다.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된 명태 자원을 배경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6년 연속 20만톤 내외의 생산이 전망되지만 이미 일부 공모선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대량 발생해 향후 생산 동향은 불투명한 분위기가 감돈다.

유럽의 필렛 시장 동향도 수리미 증감의 열쇠를 쥐고 있다. A시즌 필렛(껍질 벗긴·뼈없는) 생산량은 5만톤 미만으로 전년 동기 수준이었다. 한편 필렛(껍질 벗긴)은 2만 2,000톤 미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유럽에서의 코로나 확산으로 업소용 수요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수리미 가격은 지난 몇 년 간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2015년 kg 당 70 엔 올랐다가 2016년에는 70 엔 떨어졌다. 2017년 전반기에는 하급품이 내리고, 후반기에는 각 등급이 모두 올랐다.

아시아산 수입 감소로 미국산의 의존도가 높아지



면서 2018년은 일년 내내 각 등급이 35~50 엔 상승했다. 2019년 전반기도 4월에 각 등급이 30 엔 올랐다. 같은 해 후반기에는 각 등급이 변동 없이 그대로였다.

올해 전반기에는 4월부터 하급품만 30엔 떨어졌다. 4~6월 가격은 A급으로 kg 당 485엔(소액 수요자 양도 가격, 미나토 신문 조사), KA급 435 엔(소액 수요자 양도 가격), RA 급 375 엔(소액 수요자 양도 가격), 고급 제품인 양상 SA, FA 급은 변동 없이 그대로인 것이 대체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모선은 코로나 대책을 실시해 계획대로 조업 예정』, 『육상 공장은 전반기부터 작업자를 그대로 현지에 남겨 생산 대응』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세 전망은 홋카이도산 수리미 재고가 많기 때문에 『하급 제품은 약간 인하 예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7일자



남미·유럽 수리미 아르헨티나 7,000톤 계획

칠레는 1,000톤 미만

아르헨티나(AR)는 산아라와 S. A.의 타이안 호가 전년는 호키와 남방대구 수리미를 대략 반반으로 총 6,000톤 전후의 수리미를 생산했다.

올해도 현장의 생산 체제는 기존과 변함없이 6~7 항해에서 모두 6,000~7,000톤의 수리미를 생산할 계획이다. 6월 현재 남방대구를 중심으로 순조로운 조업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칠레 유니온수르는 전년 남방대구 수리미를 1,000톤 미만 생산했다. 한편 호키 수리미는 3, 4년 전부터 어획량이 줄고 필렛과의 경쟁도 거세져 수리미를 생산하지 않는다. 올해 수리미 생산 계획은

8월 이후 남방대구 1,000톤 미만, 호키는 계속 생산 제로를 전망한다.

<BW 수리미 생산 코로나로 지연>

日本水産은 유럽의 노던블루 호분(BW) 수리미를 전년 850~900톤 수입했다. 조지프 로티II의 전년 수리미 생산량은 총 2,600 톤 내외였다.

올해 1~3월에 700~800톤을 생산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술자가 모이지 않아 생산이 지체되었다. 일본으로의 반입 계획은 300톤 정도라고 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7일자

홋카이도산 수리미 2020년 4만톤 대 기대도

명태 호조로 5월 누계 30% 증가

2020년 홋카이도의 냉동 수리미 생산량은 주력인 명태가 호조인 점에서 4만톤 대도 기대된다.

최근 수년 동안 명태를 비롯한 원료 부족으로 생산이 부진해 높은 어가, 일손 부족 등도 겹쳐 제조업체들이 수리미 사업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어왔지만 지난해부터 이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제조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농림 수산 가공 통계 조사에서는 최신 데이터가 2018년 2만 7,700톤(이중 명태 2만 5,400 톤).

일본 전국수리미협회가 집계한 회원사 보고에 의한 2019년의 홋카이도 도내 생산(대상 4개사 5개 공장)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기 때문에 2019년은 4년만에 3만 톤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은 5월까지 32% 증가하고 있으며, 이 수

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4만톤을 초과할 수 있다.

도내 수리미 생산은 1984년 23만 7,900톤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주력인 명태 침체를 보완해 헤이세이(일본 연호: 1989년 1월 8일~2019년 4월 30일) 들어 임연수어가 대두되어 2006년~2013년은 약 5만~7만톤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까지 10만톤 이상의 어획량이 있었던 임연수어는 2015년에 1만 7,000톤으로, 명태도 2013년 20만 7,000톤이던 것이 2016년에 12만 2,000톤으로 각각 감소했다. 수리미 생산도 2014년 3만 6,000톤, 2016년에는 3만톤 아래로 떨어지는 등 원어 어획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3만톤 내외에 머물러 왔다.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7일자



일본산 고등어 5월 對중국 수출 22배 증가 베트남 수출도 높은 수준 유지

일본산 고등어 5월 한달 수출량은 1만 9,370톤으로 전월 대비 17% 감소했다. 수출이 부진했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 증가했다.

전년까지 최대 시장인 나이지리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했다.

한편 올들어 최대 수출국이 되었던 베트남 수출이 1.4 배로 늘었고, 그외 중국 수출이 21.5배 급증, 필리핀 수출도 4.1배 증가했다.

5월 평균 수출 단가는 kg 당 117엔으로 전월 대비 2% 하락했다. 전월에 이어 낮은 단가의 중국, 필리핀 수출이 급증해 9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수출량이 가장 많았던 것은 이집트

다. 5,384톤으로 이집트 1개국이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단가는 118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다. 4월까지 4개월 연속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던 베트남은 4,632톤으로 전월 대비 19% 감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1% 하락한 125엔이었다.

이집트 이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수출이 1,251톤에 그쳐 117 엔으로 4% 하락했다. 아시아는 필리핀 수출이 1,988톤으로 증가, 가격은 101엔으로 10% 하락했다. 주요 수출 국가 중 최저가였다. 중국 수출은 1,762톤으로 크게 신장했으나 단가는 108 엔으로 5% 하락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10일자

참치, 돔 등 인터넷 쇼핑몰 배송비 부담 일본 수산물 판매 촉진 긴급 대책 코로나 재난 사업자 지원

대일본수산회와 컨설팅 회사 「아트 피 아이」(도쿄도 치요다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 촉진 긴급 대책 사업 공동 사무국은 인터넷 쇼핑몰에 수산물을 출품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발송 시 배송비 등을 부담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영향을 받은 사업자의 판매 촉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1기는 사업자로부터 응모를 14일까지 받고 있다.

지원 대상 품목은 참치와 돔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재고가 쌓이거나 어가가 내린 어패류이다. 포장재 및 냉매 비용을 포함한 전국 배송 운송료를 사무국이 부담한다. 1 사

업자 당 지원 금액은 원칙적으로 500 만 엔까지다.

비용 부담 대책은 수산청의 보조 사업인 「2020년도 수산물 판매 촉진 긴급 대책 사업」에 의한 것이다. 동 사무국은 대일본수산회와 지역 진흥 및 사업 관리 등을 다루는 「아트 피 아이」가 공동으로 설치, 이 사업의 공모 및 운영을 담당한다.

응모 희망자는 동 사무국 웹 사이트(<https://suisan-ouen.jp>)에서 응모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이달 말까지 발표할 전망이다. 제2기 모집은 이달 중순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6일자



일본 개정 어업법 12월 1일 시행

일본 정부, 행정부령 공포

일본에서 12월 1일 개정 어업법 시행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 8일 시행 절차 및 운영에 관한 행정부령을 공포했기 때문이다. 동법 개정은 과학적인 어업 관리의 확대, 유희 어장과 신규 어장 등의 민간 참여 촉진 등을 목표로 2018년 12월 8일 새벽에 입안, 2년 이내 시행이 정해져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으로 준비가 되는대로 중요 어종에 과학적인 총 허용어획량(TAC) 관리를 도입키로 했다. TAC에 대해서는 『어획 수량 관리가 적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획 노력량을 규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번 정부 부령에서는 어획 노력량으로 조업 일수 시간, 어선 수, 어구의 수·크기·사용 횟수도 정했다.

연안을 주로 하는 어업권 어업에 대해서도 자원 관리 상황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 부령에서는 보고 빈도를 매년 1회 이상, 보고 내용을 어획량 및 조업 일수, 관리 조치 상황 등으로 정했다. 어협 등에는 환경 보전 비용에 대해

용도와 금액을 제시한 후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인정했다. 보전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부령으로 적조 발생 상황이나 해저 저질 파악, 표류물 및 유해 생물 제거, 종묘 방류 등에 의한 생물 증식, 어업 관련 법률 위반 예방 활동 등을 명기했다.

불법어업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엔(기존 200만 엔)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특정 수산 동식물은 정부 부령으로 전복, 해삼, 13cm 이하 장어 치어를 지정했다. 그러나 장어 치어에 대한 적용은 3년 이내의 유예 기간을 각 도·도부, 현에 부여했다.

양식 등의 어업권을 어협 우선으로 면허한다는 규칙을 없애고, 대신 어장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사용하는 기존 어업자는 우선적으로 어업권의 계속을 인정한다. 「적절하고 유효하게」의 정의는 정부가 정부 부령 발표 전인 6월 30일에 지침화해 발표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13일자

수산 단체, 정부 예산 지원 다시 요청

자민당 수산 정책 추진 의원협의회에서 코로나 재난 상황 호소

일본 자민당 수산 정책 추진 의원협의회(스즈키 슌이치 회장)는 지난 6월 24일 도쿄의 당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수산 단체로부터 예산 요구를 청취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완화와 자원 관리에 대한 지원, 어선 갱신, 해양 환경 변화 대응, 인력과 어선 확보, 수산 수요 증대, 어촌 인프라 정비 등이 과제로 꼽혔다.

대일본수산회와 JF全漁連 전국 어항어장협회가 호소한 내용은 지난 6월 18일 자민당 수산 부회·수산종합조사위원회와 전국 해수양어협회 호소 및 이날 자민당 양식어업 간담회와 거의 같다.

복수로 나온 요구 사항으로는 코로나 대책과 자원 관리를 포함한 어업자의 수입 감소 보전

방법·소득 안정 대책 사업(적립 플러스)의 확충 강화, 어선 갱신책 충실 등이 있었다.

대일본수산회는 지난 6월 18일의 요청에 추가로 자원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했다. 과학 조사 충실이나 자원 관리 부담 완화, 외국 어선 단속 등의 내용도 덧붙였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업체들이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업계는 「해의 항구에서 움직이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는 원양어선의 고정 경비 지원(일본트롤저어협회), 「시장 사용료 감면으로 이어질 예산 뒷받침(전국 수산물 도매조합 연합회)」 등의 호소가 있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9일자



양식 어류와 참치 등 6개 어종 무료 제공 유통 촉진 도쿄 도요스 어시장 매참협동조합, 정부 예산으로 생산자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영향으로 출하가 격감하고 있는 양식 어류 생산자를 지원하려고 도쿄 도요스 시장의 매참인으로 구성된 도쿄 어시장 매참협동조합(나카가와 마사오 이사장)은 조합원의 생선 가게에서 생선 무료 배포를 시작했다.

정부가 제1차 추경 예산에 담은 긴급 대책 사업 보조금을 활용했다. 양식장에서 수확이 지체되고 있는 양식 어류의 유통을 촉진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각사가 생선을 구입하고 그 전액을 국가가 보조한다. 기간 동안 1개 점포 당 제공 수량은 1개 어종으로 평균 약 150kg으로 정했다.

6월에는 참돔, 방어, 7월에는 가리비, 눈다랑어, 8월에는 황다랑어, 갯방어를 제공한다.

일본 수산청 가공유통과 아마노 쇼지 과장에 따르면 양식어류에 더해 참치도 『소비 감소로 초저온 냉동창고가 만고로 지장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고 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일본산 농림수산물 등 판매 촉진 긴급 대책 사업」에 도쿄 어시장 매참협동조합이 공모하여 채택되었다. 조합원 중 현재까지 이 사업 참가가 확정된 것은 魚耕、魚力、北辰水産、吉川水産 등 4개사이다.

6월 22일에는 전 64개 점에서 배포를 시작한 魚力(도쿄도 타치 카와시, 아마다 마사유키 사장)은 「試供品(시험적으로 써봐달라고 손님에게 상품을 무료 제공)」 돔 필렛을 매장에 진열했다. 종업원이 옆에 서서 이번 대상이 된 어류를 구매자에게 무료

로 선사한다. 참돔 제공은 6월 25일까지 4일간이었다. 6월 29일~7월 2일에는 방어를 배포한다. 참돔, 방어 모두 각 9.6톤을 취급한다. 7월 이후 제공 기간, 수량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도부 이케부쿠로점(토시마구)은 오전 10시 개점과 동시에 종업원이 내점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이 회사 나가미네 마사히로 집행 임원 영업 관리 부장은 『3~4월 매출이 어려웠으나 5월부터 점차 손님이 찾아오고, 생선들이 전년 수준의 실적에 근접하고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어식 소비가 조금이라도 활기를 띠기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일본 농수성의 이 사업은 도요스 매참조합 외에 대일본수산회, JF全漁連, 미에현漁連, 가고시마현漁連이 채택을 받았다. 각 단체는 인터넷 쇼핑몰 배송료를 무료로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6일자



일본 원양어업 경영 압박, 고정 경비 월 9억 엔 자민당 프로젝트팀 회의에서 코로나 구제 요청

일본 자민당은 18일 도쿄 나카타정 자민당 본부에서 수산종합조사회 원양어업진흥검토 프로젝트팀(PT)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양어업 단체는 신형 코로나 감염병 확대 영향으로 경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며 구제책을 요청했다.

대일본 수산회 시라스 토시로 회장은 일본트롤러어협회, 해외선망어업협회, 닛카츠어협, 전국 원양가다랑어·참치어업자협회, 전국 근해 가다랑어·참치어업협회, 5개 단체를 더해 총 6개 단체를 대표해 2020년도 보정 예산에 대한 원양 어업 관련 요구를 전달했다. 원양어업은 해외 기항지에서의 상·하선과 이동에 걸리는 제한으로 선원 승선 교체가 어려운 등의 상황에 있고, 아직까지 조업이 정지 상태 또는 큰 부담을 짊어진 채 조업을 해야 하는 어선이 많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휴어와 출어 보류 기간에 발생하는 고정 비용은 업계 전체로 한 달에 약 9억 엔

에 달하고, 영향이 심해진 3월부터 4개월간의 부담 총액은 36억 엔이나 된다며 이 경비의 조성 조치를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에 기인하는 선원 등의 교체 귀국 검역 대기 등 필요 경비의 조성(보조) 조치도 요망했다. 일본트롤러협회 요시다 코토쿠 회장은 코로나가 문제되기 이전부터 가업을 위해 적극 요청했던 어업 공제·적립 플러스에 대해 『보상 대상으로 하는 계약 개시 시기를 수속의 개시 시기로 보고 구제해 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회의에 참석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중의원은 『일본 원양어업이 쇠퇴하게 되면 중국, 한국이 그 부분을 가져가 버린다. 국익 차원에서 가능하면 배를 늘린다는 마음으로 해 달라』고 수산청 측에 요청했다.

일본 수산청의 후지타 히토시 자원 관리 부장은 『우선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싶다』며 『관계자와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6월 22일자

일본 양판점과 슈퍼 수산물 판매 호조 5월까지 4개월 연속 수산 부문 매출 전년 웃돌아

일본 양판점과 슈퍼의 수산물 판매가 호조세다. 일본 소매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5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수산 부문의 기존점 매출이 전년 동월을 웃돌고 있다.

생선회용 연어 필렛, 건어물 등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것이 식사 키트 등의 냉동 상품이다.

수고모리(집안에 틀어 박혀 있기) 현상으로 사놓아도 되는 저장성 있는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야채를 곁들인 식사 키트는 수산물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로의 궁합도 좋다. 간편성도 뛰어나 향후에도 매장을 넓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로 최근 수년간은 반등 경향이 보여지고 있던 수산 부문의 매상고이지만, 어가고자 끌어올려 온 부분도 있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9일자



일본 5월 수산물 수입액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 새우 39%, 참치 29% 감소

일본 재무성이 6월 26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5월의 수산물 수입액(어패류 및 그 조제품, 어분·해초)은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한 1,065억 4,300만 엔이었다. 3월 9% 감소, 4월 18%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크고, 2개월 연속 두 자리 수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입 수량도 17% 감소한 17만 2,625톤으로 4월 5% 감소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국제 수산물 거래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어종의 수입액은 연어·송어가 3% 감소에 그쳤지만, 참치가 29% 감소, 새우가 39% 감소로 크게 밀렸다. 수입 수량은 연어·송어가 25% 증가, 참치는 23% 감소, 새우는 33% 감소했다.

鮮冷 참치 수입액은 125억 5,800만 엔이었다. 냉

동 황다랑어는 대만산 반입이 줄어 41% 감소했다. 냉동 눈다랑어도 41% 감소했다. 반면 냉동 가다랑어는 3배로 증가했다.

한편 신선 참치는 황다랑어가 30% 감소, 눈다랑어는 43% 감소, 태평양 참다랑어는 69% 감소했다. 鮮冷 새우 수입액은 80억 5,100만 엔.

수리미 총 수입 수량은 17% 감소한 2만 3,151톤, 금액은 24% 감소한 76억 800만 엔. 미국산 명태 수리미는 수량이 12% 감소한 1만 3,379톤, 금액은 20% 감소한 45억 900만 엔이었다.

오징어는 수량이 26% 감소, 금액은 12% 감소했다. 냉동 오징어 중 살오징어 계통은 중국산 금액이 21% 증가했지만, 페루산은 70% 감소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9일자

일본 5월 수산물 수출 3% 증가한 6.3만톤으로 회복 냉동 날개다랑어 수출 호조, 냉동 명태는 60% 감소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5월 수산물(어패류 및 그 조제품, 어분 등)은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한 6만 3,450톤, 2% 감소한 172억 엔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올해 1월부터 두 자리 수 감소율을 보였고, 특히 3월은 22% 감소, 4월은 35% 감소로 떨어졌지만 5월에 회복되었다.

주력 품목으로는 냉동 가리비가 수량, 금액 모두 전년 동월을 상회한 외에 냉동 날개다랑어가 크게 늘어났다. 방어 필렛은 대폭적인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냉동 가다랑어는 통조림 원료가 되는 태국 수출이 수량 67% 감소한 1,024톤, 금액 64% 감소한 1억 5,900만 엔이었다. 전국적으로 어획량이

저조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냉동 날개다랑어는 태국 수출이 4.8배인 2,247톤, 4.6배인 7억 9,100만 엔이었고, 베트남 수출은 8.5배인 1,456톤, 8.7배인 5억 5,000만 엔으로 크게 신장되었다. 태국 수출에 더해 베트남 수출로 시장을 넓혀 가고 있는 것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했다.

방어 필렛은 냉동, 신선 모두 상당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냉동은 수량이 73% 감소한 179톤, 금액이 75% 감소한 3억 100만 엔이었다. 냉동 가을연어는 34% 증가한 782톤, 25% 증가한 3억 200만 엔이었고, 냉동 명태는 수량이 60% 감소한 701톤, 금액이 59% 감소한 8600만 엔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9일자



우미토론, 해양 정보 수집에 관측 위성 이용 양식 분야에서 참여, 2022년도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발사 예정

일본 수산 벤처 기업인 우미토론(도쿄도 미나토구, 후지와라 켄 대표 이사)은 지난 6월 25일 우주항공 연구 개발기구(우주기구, JAXA)의 혁신적인 위성 기술 실증 3호기의 실증 테마로 東京工業大 등과 함께 진행하는 해양 관측 임무를 탑재한 소형 위성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2022년 발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해양 플랑크톤과 영양염류 정보를 고빈도·고해상도로 관측해 양식업 과제 해결에 나선다.

어류, 패류, 해조류 양식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형 저궤도 위성의 특징인 고빈도·고해상도 관측을 살려 지금까지 관측이 어려웠던 해안 및 항만의 해양 환경을 파악한다. 이 프로젝트는 東京工業大를 대표 기관으로 관측 기술과 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가진 여러 대학과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나고야대학이 해양학·원격 탐사 데이터 분석을 수행, 도쿄대학이 학술 분야 데이터 이용을, 東北大가 위성 통신의 지상국 네트워크를 담당한다.

우미토론은 데이터 분석 및 양식업에 대한 서비스 실증 실험을 담당한다. 광학 시스템 개발 기업인 제네시아 및 우주기기 제조 판매사인 디웨이 스페이스가 관측 장치 및 멀티 스펙트럼 카메라 개발 및 제조를 담당, 인공위성 시스템 설계 등을 사업으로 하는 아이넷은 위성 운용 시스템 설계를 맡는다.

우미토론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양식을 위한 해양 데이터 서비스 「UMITRON PULSE」를 7월 상순에 발매한다. 해양 데이터 활용 등을 생각하는 수산업자 등에게 판매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9일자

일본, 홍콩에 일본산 식품 수출 확대 나서 ‘홍콩 일본산 식품 등 수입 확대 협의회’ 결성

홍콩의 일본 요리점 협회는 6월 1일 ‘홍콩 일본산 식품 등 수입 확대 협의회’를 결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홍콩 일본산 농림 수산물·식품의 수입 확대를 도모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 목표액(2025년 2조 엔, 2030년 5조 엔)에 기여하는 홍콩의 일본산 식품 관계자 간의 친분을 강화해 수입 확대에 이어지도록 하고, 홍콩의 시장 요구를 일본 측에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일본 무역진흥회)가 6월 10일자 비즈니스 단신으로 이같이 전했다.

이 단신에 따르면 이 협회회의 설립 멤버는 주한 홍콩 총영사관, 일본 무역진흥회, 홍콩 일본인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주재 사무소, 전농 인터내셔널 홍콩, 농림 중앙 금고 홍콩 주재원 사무

소, 동 협회로 되어 있으며, 동 협회회의 단장·사무국은 협회가 담당한다. 동 협회회의의 허무로 토시오 좌장(협회 회장, Zen Foods 회장)은 『일본의 산지 홍콩 소비자, 일본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재 홍콩 레스토랑 셰프의 중개자로서의 역할도 잘 하고 싶다. 협회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농수성이 공표한 2019년의 농림 수산물·식품 수출 실적에 따르면 일본에서 홍콩의 농림 수산물·식품 수출액은 2,037억 엔으로 일본 전체 수출액 9,121억 엔 중 22.3%를 차지하고, 홍콩은 일본의 15년 연속 1위 수출 대상국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2일자



노르웨이 수산물 상반기 수출액 사상 최고

코로나 사태에도 연어·송어, 고등어 신장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NSC)가 발표한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 실적에 따르면 1~6월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529 억 노르웨이 크로네(이하 크로네, 약 6,000억 엔)로 사상 최고 실적이었다.

NSC는 『봄에 코로나 충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어·송어, 청어, 고등어 수출이 증가했다. 크로네 하락도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연어는 2% 증가한 350억 크로네(약 4000억 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 영향을 받아 레스토랑 부문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4월 이후 상황은 개선되었다고 NSC는 밝혔다.

유럽 시장은 성장했지만 아시아 지역은 약간 감소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2월에 거의 정지되었다. 식품 수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 도입 후 5월까지의 완만한 성장을 보였다고 한다. 송어는 10% 증가한 18억 크로네(약 200억 엔). 전년 동기에 비해 환율이 16% 하락했지만 수량이 29% 증가했다. 미국, 우

크라이나, 일본이 송어 최대 시장이었다.

주요 어종 중에서도 특히 증가율이 높았던 것이 고등어다. 수출액은 47% 증가한 6억 5,800만 크로네(약 75억 엔)로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

북동 대서양 고등어의 어획 쿼터가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외국 어선에 의한 노르웨이 고등어의 어획량도 증가했다고 한다. 대일 수출은 수량으로 44% 증가, 금액으로 46 % 증가했다. NSC는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 충격은 일본에서도 사재기로 이어졌다. 건강하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 고등어는 소비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청어의 수출액은 30% 증가한 18억 크로네(약 200억 엔). 냉동 대구는 12% 증가한 19억 크로네(약 220억 엔), 신선 대구가 4% 감소한 16억 크로네(약 180억 엔), 왕게가 20 % 감소한 2억 900만 크로네(약 20억 엔)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8일자

러 세계 최대 가공선 정어리·고등어 작업 착수

공치 조업 안하면 가을부터 명태를 목표

북양개발협회(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내)에 따르면 2019년까지 일본 어선 등의 북태평양 양상 공해 공치 수매를 하던 러시아 드브로 플로트社 소속 세계 최대 가공 공모선 중 1척, 3만 2,000 톤급인 ‘후세보로·시비루시예후’가 남쿠릴에서 정어리·고등어 조업에 나서게 되었다.

이 어선은 지난 몇 년 공해상의 공치 원어를 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 정어리·고등어 조업에 착수해 왔었지만 올해는 직행한다. 5개월 간 남쿠릴 주변 해역에서 조업한 후 10월에 오토츠크해

로 북상, B시즌 명태조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 선박은 통조림 제품 등을 해외에서 생산하기 위해 1989년에 핀란드에서 건조했다. 같은 타입의 대형 가공 공모선은 1988년부터 1989년에 걸쳐 같은 나라 조선소에서 3척을 건조했다. 이 선박은 2011년 12월 이후 그리스 등기 회사에 의해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관리, 운항되어 중국 어업에 투입된 후 2014년 러시아 선박으로 가동되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19일자,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6월 19일자



유기 양식 새우 유럽에서 인기 마다가스카르 OSO사 친환경 블랙타이거 생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유기양식법으로 맛 성분을 응축한 마다가스카르의 오가닉(유기농) 새우가 유럽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유기농법에 관한 유럽연합(EU) 규정과 프랑스 정부의 기준을 충족한 생산자에게 주어지는 자격 인증 「AB 라벨」을 세계 최초로 획득한 OSO사(본사=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 전 유럽으로 수출 판매하고 있다.

맛과 환경, 생태계를 배려한 '지속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운 상품 출시가 친환경, 윤리적, 미식 등을 중시하는 유럽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OSO사는 종묘 생산에서 양식, 가공 및 수출 판매까지를 일원화하는 통합 경영으로 연간 1,625톤의 유기 새우(블랙타이거<BT>)를 생산, 주로 프랑스에 수출하고 있다. OSO사는 맹그로브 숲과 악어가 서식하는 청정 생태계를 남겨두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북서부 안카라나 지역에 광대한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82면(面) 짜리 양식장에 약 14km 떨어진 인도양의 비오염 지역으로부터 청정한 바닷물을 끌어 올려 쓰고 있다. 이 중 유기 새우 육성에 각 10헥타르인 42면(평균 수심 1.6미터)을 운영한다.

용수 염분 농도는 3.5%로 일반적인 양식장보다 2~3배 높고 카르스트 대지로부터 스며나오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수중에 조류, 식물 플

랑크톤이 번성하고 있으며, 그런 광합성을 통해 양식장에 산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관리된 자연 공생형 양식 수역을 구축하고 있다.

광대한 수면의 장점을 살려 양식 밀도는 1m² 당 약 6마리로 극도로 밀도를 낮추고, 유전자 조작 원료를 전면 배제한 100% EU 기준 유기 사료를 지속적 공급하고 있다. 종묘도 자체 생산 무균 무투약, 화학 물질 제로로 육성한 엄선한 완전 비감염 건강한 어린 새우만을 양식한다. 사육 기간은 대략 12개월이고, 120~140그램 크기로 성장한다.

출하하는 새우는 양식장에서 수확하는 즉시 냉각수 처리를 한 후, 셔벗 얼음물에 담가 공장으로 이송한다. 고급 위생 시설을 갖춘 가공 공장에서는 선별, 상자에 넣은 후 브라인 용액으로 순간 동결한 뒤 IQF 팩 제품을 남프랑스 항구 도시 마르세유로 보낸다. OSO사는 프랑스의 주요 수산 회사 「R&O 시푸드·가스트로노미」그룹으로 유기 양식법에 의한 새우, 농어, 돔 등 외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 천연 생선을 현지에서 고선도, 고도위생 가공 처리해 처리 주로 프랑스에 수출한다. 일련의 상품 수입원은 「R&O」로 자사 판매망을 통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전 유럽에 판매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13일자

아이슬란드 해덕대구 쿼터 늘리고 대구 쿼터 줄여 아이슬란드 정부 TAC 설정 연구소 권고 수용

아이슬랜드는 다가오는 2020-21 아이슬란드 수역 조업시즌에 해덕대구 총허용어획량(TAC)을 9% 늘리고 대구 쿼터는 6% 줄이기로 했다. 이 결정은 아이슬란드 해양담수연구소(MRI)에

서 최근 권장한 사항과 일치한다.

해덕대구 TAC 쿼터는 4만 5,389톤, 대구는 25만 6,593톤으로 설정되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7월 7일



나미비아 민대구 조업 20개 회사, 상당한 쿼터 삭감 직면 쿼터 할당 지연, 많게는 50%까지도 삭감 예상

나미비아 언론사인 Namibian에 따르면 올해 20개의 나미비아 어업 회사들이 민대구 쿼터 할당 과정에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해 쿼터 삭감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수산부 장관인 Albert Kawana는 새로운 어업권을 최종적으로 할당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한 지연으로 인해 올해 많은 기업들이 많게는 50%까지도 쿼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민대구 쿼터는 연초에 할당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도 할당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대구 쿼터에 의존하는 많은 회사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상당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고등어 쿼터의 재분배는 진행 중으로 유출된 문서에는 『어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중 전쟁 참여 용사들에게 쿼터를 더 많이 할당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전임 수산부 장관인 Bernhard Esau가 2012년에 설립한 많은 합작회사들은 각각 기존 1만톤에서 4,000톤으로 상당한 고등어 쿼터 삭감에 직면해 있다.

한편, Namibian 언론사는 새로운 고등어 쿼터 할당의 최대 승자는 Tunacor 그룹의 Namsoy Fishing Enterprises(2018년에 Tunacor 그룹에 인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0년 6월 20일자

베트남 5월 수산물 수출 1.6% 감소 누계 6% 감소한 30억 달러 전망

베트남 수산물수출가공협회(VASEP)의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의 1~4월 수산물 수출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세계적인 유행 영향을 받아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2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5월 한 달의 수출 추정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해 누계(1~5월)는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29억 8,600만 달러가 될 전망이다. 유럽과 미국 시장의 팽가시우스 등의 수출이 떨어졌다.

감염병 확대 영향을 처음으로 받은 것은 중국이다. 1~2월의 대 중국 수출은 크게 줄었지만 3월 이후 수요가 회복해 4월 실적은 전년 동월 대

비 35% 증가, 5월은 20% 증가되었다고 한다. 1~5월 누계 수출 실적이 가장 높았던 것은 일본 시장이었다. 동기의 대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5억 8,900만 달러가 될 전망이다. 對日·對中 수출 증가로 VASEP는 『對美·對 유럽 수출 감소를 상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기 수출 추정액은 새우가 3.7% 증가한 11억 8,900만 달러, 팽가시우스가 24.3% 감소한 5억 9,800만 달러, 참치가 17.7% 감소한 2억 4,600만 달러, 오징어·낙지가 18.7% 감소한 1억 9,800만 달러였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2일자



새우 미국 4월 수입 6% 증가한 5만 2,000톤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 급성장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통계에 따르면 4월 미국 새우류(팽가루 있는 제품 등 조제품 포함)의 수입 수량은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한 5만 1,733톤이었다. 4개월 연속으로 전년을 상회했다.

종류별로는 냉동 간새우 가공품류가 신장되었다. kg 평균 단가는 3% 상승한 8.94 달러. 수입 금액은 9% 증가한 4억 3,943만 달러였다.

국가별 수입량은 1위인 인도에서 25% 증가한 2만 2,229톤으로 신장되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수입량이 적었던 전년 동월에 비해 45% 증가한 1만 3,804톤으로 신장되었다. 아르헨티나는 18% 증가한 990톤이었다.

한편, 에콰도르는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31% 감소한 5,950톤. 이밖에 중국이 33% 감소한

794톤, 태국이 9% 감소한 2595톤, 베트남이 9% 감소한 3,238톤이었다. 전년 동월의 수입량이 2018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던 멕시코는 73% 감소한 560톤에 그쳤다.

종류별로는 냉동 간 새우가 13% 증가한 2만 5,695톤이었다. 이중 온수계가 33% 증가했다. 냉동 껍질 있는 새우(통새우)는 19% 감소한 1만 2,869톤이었다. 가공품류는 27% 증가한 1만 2,960톤으로 신장되었다.

2020년 누계 수량은 22만 314톤(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금액은 18억 8,808만 달러 (13% 증가)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2일자

빨갱이(적어) 미국 알래스카산 지난 10년 최저가 권 대량 매출 기대

미국 알래스카산 아카우오(빨갱이, 적어) 가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지난 10년 내 최저가 권에 있다. 이달 일본 국내 반입 신물은 드레스 400/500g 사이즈의 내판 가격이 kg 280 엔으로 전월 대비 10 엔 정도 떨어졌다. 또한 6월에는 국내에 재고가 있던 300/400g 사이즈가 약 20엔 내려 250 엔 전후가 되었다.

가격 인하로 『양판점 등에서의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일본 상사 관계자들은 밝혔다.

지난해 알래스카 물은 어획 쿼터가 많아 가자미를 잡는 어선이 빨갱이(아카우오) 조업으로 전환했고, 미중 무역 마찰 등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올해의 베링 알류산 해역의 어획 쿼터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4만 3,000톤이지만 어획은 나쁘지 않다고 상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올해 알래스카 물은 미중 무역 마찰의 완화와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을 통해 구미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이 전망됐다. 단, 코로나 감염병으로 구미 지역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구미용으로 가공을 하는 중국 업체는 지난해 재고가 풍부하기도 해 매입 보류 경향을 보여 시세도 내렸다고 말했다.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시세는 최근 10년 사이 최저가 권을 기록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7월 7일자



사바야 그룹 고등어 양식에 ICT 도입

도코모와 실증 실험 온라인 기자 설명회 개최, 한해 9만 마리 출하 전망

사바야(오사카부 토요나카시) NTT 도코모(도쿄도 치요다구)는 최근 정보 통신 기술(ICT)를 활용한 고등어 양식 실증 실험에 대해 온라인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NTT 도코모의 이케다 켄이치 地域協創·ICT 추진 실장은 실증 실험에 있어서 『도코모의 ICT 기술로 지역의 1차 산업 발전, 일손 부족 해소 등에 기여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바야 자회사에서 양식 사업을 담당하는 피시 바이오 테크와 도코모는 5월 28일부터 와카야마현 구시모토정 양식 어장에서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 수조의 수질 측정 데이터 및 성장 기록 등을 ICT로 자동 수집하고 분석, 효율적인 먹이 공급에 의한 사료 비용 절감과 높은 생산율화 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니터링 장비 및 작업 일지를 넣을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모은 데이터는 양식 관리 클라우드로서 통합 관리한다. 이케다 地域協創·ICT 추진 실장은 먹이와 폐사의 발생 상황은 어항별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 소나를 활용해 고등어의 상태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육성이 되도록 한다.

사바야 그룹은 1월에 다른 회사가 생산하고 있던

양식 수조 4개(세로 12m, 가로 12m, 깊이 5m)를 인수했다. 또 매실 추출물을 사용한 사료로 키운 완전 양식 고등어를 공모를 통해 「고리야! 우메에 사바(야! 매실 고등어)」라고 명명했다. 지난 3월 8일부터 마루나가 수산(와카야마현 타나베시)의 오우오무라에 있는 SABAR 점포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바야 그룹 右田사장은 마루나가수산과 「고리야! 우메에 사바」 생산 등을 추진하는 것 외에 고등어 그룹으로서 외식기업과 축양시설을 통째로 브랜드화 하여 기업 오리지널 브랜드 양식 고등어를 개발하는 구상을 소개했다.

右田사장은 『해당 기업에서 발생하는 후드 로스를 이용한 먹이로 고등어를 기르고 싶다. 기존 사료 개발과는 다른 모델을 지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右田 사장에 따르면, 아나스키스를 억제하는 먹이 개발에도 착수한다.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과의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5월 현재 수조에는 약 3만 마리의 고등어가 양식되고 있으며, 이달 말에 인공종묘 2만 마리를 지입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2일자

EC 해양수산총국 국장 신규 선임 불가리아 출신, EC 지역도시총국 국장 지내

유럽이사회(EC) 해양수산총국(DG Mare) 국장으로 Bulgarian Charlina Vitcheva가 6월 1일자로 신규 임명되었다.

해양수산총국에 합류하기 전에 Vitcheva는 EC 내에서 11년 이상 여러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공동연구개발센터(JRC) 부센터장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했고 지역도시총국(DR Regio)에서 여러 지위를 경험하며 국장을 지냈다.

Vitcheva는 EC에 합류하기 전에 불가리아 전권 공사를 역임했다. 불가리아 공공 부문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으며 주로 농업 및 어업

문제를 다루었다. Vitcheva는 불과 한 달 동안 재직하면서 7월 1일에 EU 어업인 단체(Europêche)와 EU 어업인 기구 협회(EAPO)와 만나 산업의 미래에 대한 주요 문제를 논의했다.

Europêche와 EAPO는 해양수산총국에 일정 물량의 참치 로인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없애 줄 것을 건의했다. 그들은 EU 선박이 잡는 어획물이 충분하며 ATQ 제도는 참치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7월 2일



허허바다

정 호 승

허허바다에 가면
 밀물이 썰물이 되어 떠난 자리에
 내가 쓰레기가 되어 버려져 있다
 어린 게 한 마리
 썩어 문드러진 나를 툭툭 건드리다가
 썰물을 끌고 재빨리 모랫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나는 팬티를 벗어 수평선에 걸어놓고
 축 늘어진 내 남근을 바라본다
 내가 사랑에 실패한 까닭은 무엇인가
 내가 나그네가 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어린 게 한 마리
 다시 썰물을 끌고 구멍 밖으로 나와
 내 남근을 툭툭 친다
 그래 알았다 어린 참게여
 나도 이제 옆으로 기어가마 기어가마

찾아가보니 찾아온 곳 없네
 돌아와보니 돌아온 곳 없네
 다시 떠나가보니 떠난 곳 없네
 살아도 산 것이 없고
 죽어도 죽은 것이 없네
 해미가 깔린 새벽녘
 태풍이 지나간 허허바다에
 겨자씨 한 알 떠 있네.





해양수산 신산업 성과창출 본격화!

신산업 현장에서 혁신전략 성과 점검 기업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함께 해양바이오수소 플랜트가 입지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본부에서 기업 간담회를 개최, 지난해 10월 대통령 충남 경제투어에서 발표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의 성과를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전국 경제투어는 '18.10월부터 '19.10월까지 총 11회 개최되었으며, 그 이후 후속 현장방문은 '19.11월 전북에 이어 이번 충남이 여덟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충남 경제투어 당시 발표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에서 해양수산 신산업을 통한 해양 부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11조원의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① ▲해양바이오, ▲치유생태 등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첨단 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5대 핵심 해양신산업 육성,

② 해운·항만·수산 등 해양수산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 ③ 해양수산 혁신 생태계 조성의 3대 전략, 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19.10월 전략 수립 이후 일 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지난 5월부터 기업 간 상시 협력 채널인 '예비 해양유니콘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 및 지역과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참석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재 연구 및 산업화 지원 확대, 갯벌 통합 관리,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범부처 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을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해수부, 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소비쿠폰 발행사업자 모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수산유통 스타트업 대상 공모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수산물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쿠폰을 발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지난 7월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쿠폰 발행 사업 예산이 21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사)한국수산회가 주관하게 된다.

공모는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응모 대상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경제지주가 설립한 유통사업체(이하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온라인 쇼핑몰'), 그 외 수산물 유통·판매에 특화된 스타트업 등의 유통사업체가 해당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사업체는 한국수산회 누리집(www.korfish.or.kr)에 공개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로 7월 20일 오후 6시까지

지 제출(연락처 : 02-589-4623)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유통사업체 중 전년도 수산 분야 매출액, 자체 홍보계획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형마트 6개소, 온라인 쇼핑몰 15개소 및 수산유통 스타트업 6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유통사업체와 7월말부터 소비가 부진하거나 조기출하 지원이 필요한 수산물 등을 별도 선정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사업자 선정이 끝나는 대로 할인행사 기간, 품목, 할인 적용 방식 등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판매가 부진한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신속히 대상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여름철 특별전, 추석 특별전,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특별전 등 대규모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여 수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사업 대상 기관 >

구분	공모대상	비고 (할인 방식)
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법 상 중앙회 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설치한 유통사업체	회원 대상, 각 행사별로 지정품목 구입 시 20% 할인쿠폰 (1인당 1만원 한도) 발행 (결제 시 차감)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사업자, 그 외 수산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	
직거래 장터	광역지자체 대상 8월 중 공고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 지 자체 연계 행사 개최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수산부류 도매시장 (총 40개소), 8월 중 공고	추석 연계, 수산물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잠정)



해양모태펀드 1호 투자의 주인공은?

7일 투자계약 체결식 개최, 해양수산 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해양모태펀드가 해양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다.

해양모태펀드의 1호 투자를 받는 주인공은 트레드링스,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제이디솔루션까지 3개 창업기업이며 해양모태펀드는 트레드링스에 8억원,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에 10억원, 제이디솔루션에 1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7월 7일 오후 3시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해양모태펀드 1호 투자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해양모태펀드 운용사인 수림창업투자회와 캐피탈원, 1호 투자대상인 트레드링스,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제이디솔루션 대표가 참석했다.

‘트레드링스(대표 박민규)’는 수출입 물류 시장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는 창업기업으로, 수출입 물류비 자동 견적 시스템 ‘링고(LINGO)’,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화물 관리시스템 ‘짐고(ZIMGO)’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트레드링스는 지난 2월 매출 약 16조 원 규모의 자동화 솔루션 국제 기업 ‘에머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화물 출하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실시간으로 화물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인 ‘쉽고(ShipGo)’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대표 박재필)’는 우리나라 최초로 초소형 위성 군집을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창업기업이다. 초소형 위성 군집은 하나의 정밀한 위성에 비해,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부산항 등 항구도시를 1시간 간격으로 상시 관측하는 초소형 위성과 여기서 제공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해양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제이디솔루션(대표 제영호)’은 초지향성 스피커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초지향성 스피커는 소리가 주변으로 흩어지지 않고 방향성을 갖게 하여 원하는 영역에만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다. 제이디솔루션은 초지향성 고출력 스피커, 레이더, 물대포, 레이저 기술을 연동한 ‘해적방어시스템’과 ‘해상경고시스템’ 등을 우리나라 해군, 해경, 어업관리단에 제공했으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에도 수출하고 있다.

한편, 해양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정책펀드인 ‘해양모태펀드’는 지난해 총 295억원 규모의 자펀드 2개가 처음 결성된 데 이어, 올해에도 약 300억원 규모의 자펀드 2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다가오는 뉴노멀 시대의 주역은 바로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될 것』이라며, 『해양모태펀드를 2023년까지 약 1,4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여, 해양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제 3차 추경 784억 원 확정

코로나19 피해 수산업계 지원, 친환경 관공선 도입 등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2020년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이 7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 778억원보다 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 1.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지원: 261억원 >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출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 발급 등을 지원(210억원)한다. 주요 할인대상 품목으로는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 어종과 여름철 고수온·적조로 조기출하지원이 필요한 어종,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수요가 높은 제수용품 등을 선정할 계획이며, 1인당 최대 1만원 한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비대면 유통망을 활용하여 우리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촉비용 등을 지원(51억원)한다. 8월부터는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100여 곳의 다양한 제품들이 해외 온라인 전자상거래 누리집과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해 판매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수출업체들이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2. 그린 뉴딜을 위한 친환경 선박 등 본격 도입: 91억원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핵심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관공선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추경에는 어업지도선 2척, 순찰선 2척, 수산자원조사선 2척 등 총 6척의 설계비 31억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친환경 관공선 도입과 별도로 원양어선 안전 확보를 위한 원양어선 안전펀드 예산도 60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되어 노후 원양어선 2척의 추가 대체 건조도 추진할 예정이다.

< 3.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 SOC 투자 확대: 382억원 >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간접 자본(SOC) 분야 예산도 382 억원이 반영되었다.

< 4. 어촌 관광 활성화: 6억원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예산 6억원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되었다.

이 외에도 선박도면의 비대면 검사 체계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34억원, 13 개 무역항에 설치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반영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온라인 전시장(쇼룸) 판촉 중화권 수출시장 공략, 참치 마파두부 덮밥 등 퓨전식 소개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화권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음식 촬영장형 온라인 전시장(쇼룸)을 운영하여 수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음식 촬영장형 온라인 전시장(쇼룸)은 제품을 전시하여 구매자에게 소개하고 판매상담을 진행하는 사업 방식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국내 수산물 수출 기업이 현지 구매자를 초청하여 수산식품을 시식·요리하고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체험형 전시장을 기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여 온라인 전시장(쇼룸)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시장(쇼룸)은 직접 누리집 주소(www.kseafoodshowroom.com)를 입력하여 접속하거나, 중화권 전자상거래 누리집인 ‘샤오홍수(www.xiaohongsu.com)’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전시장(쇼룸)에서는 우리나라 김, 어묵, 참치, 고등어, 갈치 등 수산식품 9종을 전시, 홍보하는 것은 물론 중국 내 유명인인 왕홍의 실시간 요리방송, 한식 요리사의 요리교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식품을 활용하여 만든 마라콩나물 어묵찜, 감자반 량피(涼皮), 참치 마파두부 덮밥 등 다양한 퓨전 중식요리법을 영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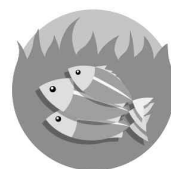
또한 중국 현지 소비자가 온라인 전시장(쇼룸)에



서 전시, 활용된 한국 수산식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샤오홍수, 위챗(Wechat), 타오바오(Taobao) 등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누리집과 연동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위챗(Wechat)에 한국 수산식품 전용 사업자 계정을 개설하여 원격 방식의 현지 구매자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 현지 구매자를 직접 초청하여 시식 등의 체험과 수출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온라인 전시장(쇼룸) 마케팅과 같이, 우리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20.7. ~ ’21.6. 어기 총허용어획량 286,045톤 확정

해양수산부는 2020년 7월~2021년 6월 어기 총허용어획량(TAC)을 286,045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어업자원 이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어기마다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내에서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붉은대게, 꽃게 등 12개 어종과 대형선망, 쌍끌이대형트롤, 근해채낚기, 근해통발, 잠수기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어기에는 키조개를 어획하는 전남 잠수기*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 6위를 기록한 삼치가 시범사업 어종으로 추가되었다.

전남 잠수기 업종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어기의 주 어종이었던 오징어, 고등어의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308,735톤)에 비해 7.3% 감소한 286,045톤으로 정해졌다.

TAC 시범사업은 작년부터 적용되어 온 갈치와 참조기에 이어 삼치까지 3개 어종에 적용되며, 2021. 7.~2022. 6. 어기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어업인에 대한 홍보와 제도 보완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삼치 TAC 시범사업은 삼치의 어획 비중이 높은 업종인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중형저인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TAC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7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한다. 먼저, TAC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에서만 매매·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나, 해외로 TAC 어획물을 수출할 때에는 세관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통해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하여 수출 과정을 간소화했다.

또한 TAC 소진율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원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어기의 TAC 소진율이 60% 이하인 어종은 시·도별 배분량의 10% 범위 내에서 시·도 유보량을 확보하여 소진율이 높은 어선에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어업인 간 TAC 물량을 주고 받는 ‘전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어종별 소진율이 80% 이상일 때만 다음 TAC 할당 시에 전배물량을 반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종별 소진율이 80% 미만이어도 지난 어기 소진율 수준이라면 전배물량을 반영해 다음 어기 TAC를 할당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 관리 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 및 기술거래지원단 발족식 개최 해양수산 분야 기술 사업화에 속도 낸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6월 29일 오후 2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를 열고 ‘해양수산 기술거래지원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연구개발(R&D)의 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각 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와 기술이전 실적을 공유하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발굴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동 기술이전 상담회, 기술이전 매

칭회의 등을 통해 총 72건, 22억 7,000만원 규모의 실적을 올렸으며, 기술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합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해 유망기술 131건을 발굴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기술거래 성과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사업화 전문회사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기술거래지원단’을 발족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네오리서치,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울, 특허법인 두호, ㈜아이피씨앤비, ㈜에프엔피파트너스, ㈜이수아이피센터, 특허법인 프렌즈, 특허법인 천지 등 9개 기관이 해양수산 기술거래지원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비대면 방식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

수산물 수출 모든 것, 만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산물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 공유설명회와 세미나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현장설명회를 취소하고 교육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제공하였으나 충분한 수출정보 전달에는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산물 수출정보를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여 수산물수출

정보포털 누리집(www.kfishinfo.net)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은 수산물 수출 준비사항부터 수출 절차, 서류 작성 방법, 국가별·품목별 수출정보 등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총 15편이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직접 시장정보를 분석하여 설명하는 영상도 별도로 제작하고, 수산물수출정보포털 누리집 안에 수출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질의응답과 기타 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상담센터는 콜센터(1644-6419)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구의 비밀스런 번식 행동 최초 공개!

해수부, 바이오로깅 기술로 진해만 대구 번식 행동 촬영

해양수산부는 대구의 산란장인 진해만 수중에서 번식을 위한 대구의 산란행동 과정을 국내 최초로 촬영해 공개했다.

겨울철 인기 어종인 대구는 연평균 7,837톤(2017~2019)이 어획, 생산되어 상업적 가치가 큰 어종이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대구 자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2011년부터 바이오로깅 기술을 활용하여 동해안에 서식하는 대구의 생태정보 조사에 나섰으며, 영상을 통해 번식 행동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오로깅(bio-logging)은 해양생물에 소형 기록계를 달아 생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사람이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해양생물의 이동 경로나 경로별 머무르는 기간 등의 생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2019년 12월 번식을 위해 진해만을 찾은 수컷 대구의 등에 초소형 수중영상 기록계를 부착한 뒤 방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수면에 떠오른 장비의 위치를 전파수신기로 찾아 해당 생태정보를 분석해 왔다.

기록계에 찍힌 수중영상에는 수컷 대구가 암컷이 산란한 알을 찾아가는 과정과 알을 확인하고 수정시키기 위해 방정하는 장면 등이 기록되었고, 18m의 수심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이번 영상은 국립수산물과학원 인스타그램(<https://instagramcom/nifs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에 수온·수심 기록계를 단 바이오로깅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동해안 대구

가 1~6°C의 수온과 140~320m의 수심에서 성육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수중계류형 수신기를 통해 대구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산란을 위해 진해만을 찾아 7~15일을 머무른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현재 대구 외에도 참홍어 등 다양한 어종에 바이오로깅 기술을 적용하여 생태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기반 연구를 수행 중이며, 수산자원을 지속적이고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기존에는 알과 어린물고기나 알배기 어미의 채집 위치 등을 통해서 산란장을 추정하였으나, 이번 영상은 대구 산란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기록한 첫 결과물로, 향후 안정적인 대구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자료로서 의미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바이오로깅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해양생태자료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전무	이동욱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최경삼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술	589-1601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 영 지 원 본 부	기획총무부	오재경 이사	589-1604	총괄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이사	589-1612	총괄	
		강성현 차장	589-1605	총무, 회계		진호정 차장	589-1613	선망	
		박설진 과장	589-1621	경리, 예산		최봉준 대리	589-1614	국제협력	
		공길웅 과장	589-1606	기획자금, 생산통계		백상진 사원	589-1615	연승·오징어	
		조성환 과장	589-1620	문서, 운전					
	회원지원부	이성재 부장	589-1610	총괄	해외협력 2부	이형균 부장	589-1616	총괄	
		소기동 차장	589-1611	노사, 선원		조성주 과장	589-1617	복양, 쏘치	
		김효상 과장	589-1619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동환 주임	589-1618	기타트물	
	홍보·마케팅 지원센터	김현태 이사	589-1608	총괄	부산 지부	-	이형균 부장(겸직) 김현애 과장	(051) 253-3388	총괄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김영수 과장	589-1609	홍보·마케팅지원		공인 계량소	이영두 팀장 이동주 팀장	051) 253-3391	차량계량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관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일반/지역수산물기구
	국제협상지원팀	이재영 행정관	044-868-7837	OFIS, 해외투자, 행정	해외진출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양재길 팀장	044-868-7364	국제협상 총괄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이하나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물기구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e.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남아공·모잠비크	정연국	27-71-285-4131(+82-10-5353-7135) ygjeong21@naver.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23호

발행 : 2020년 7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다양한 해외수산투자 정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에서 확인하세요

www.ofis.or.kr



해외진출 정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산업 정보 제공

110개국 수산업 국가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내외 최신정보 제공

국내외 기사 및 자료를 분석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내외 원양산업 관련 뉴스
- (원양산업 동향) 매월 생산량, 어가 동향 등 원양산업 현황 정보
- (국제수산물시장 동향) 국제 수산 이슈 및 국제 회의 동향

원양산업 주요국가 최신정보 제공

9개국 명예해양수산관(연안국 현지 교민)이 주요 수산업 동향, 어가, 유가 등 생생한 정보 제공

요청자료가 있을 시 문의해 주시면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 경험 및 진출기회 공유

진출 업체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특별기고로 전문가 소개 및 진출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정보 제공

업체 투자 희망국 전문가 초청, 조사, 융자 등 진출을 지원합니다.

- 해외에 수산부품(양식, 가공, 유통) 투자 시 사업자금 융자
- 전문가 초청 교육 수요조사 및 일정
- 투자 희망국 수요조사 및 일정



최신 정보가 메일로 쏙! 쏙! E-Newletter 받아보세요!

아래 기관메일로 E-Newletter를 신청하시면
매월 최신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에스빌딩 6층
Tel 044-868-7836 기관메일 survey@kofci.org